



천주교 제주교구 **(통합 가이드북)**

# SANTO VIAGGIO

산토 비아조 거룩한 여행



순례자			
이 름			
세례명			
소 속	교구	본당	
순교 성인의 신심을 본받고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기원하며 성지순례를 시작합니다.			
시작한 날	년	월	일
순례의 시간 안에서 받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미로 성지순례를 마칩니다.			
마친 날	년	월	일

## 제주 천주교 순례길 책자를 펴내며

그리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스치는 작은 마을에 불현듯 멈추어 서도 제주는 늘 아름답습니다.

길 곁, 수줍은 유채꽃과 동백꽃  
차창 너머로는 여정의 벚, 다정한 바다와 한라산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오름의 능선  
하얗고 노오란 고깃배 집어등이 수없이 수를 놓는 푸른 밤  
제주는 한없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갔던 순박한 이들의 아픈 역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바다의 풍요로움으로부터 기인한 착취  
죽음을 각오한 유배지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한 4·3의 생생한 기억까지.

기난과 죽음의 경계를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이 땅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함께 했던 제주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걸어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하느님을 향해 순례하는 교회를 느껴봅니다.

이 여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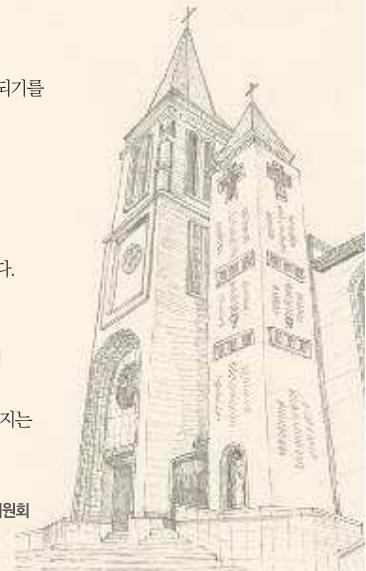
지금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과거의 기난과 아픔을 기억하는 길이 되기를

지금의 평화로움에 감사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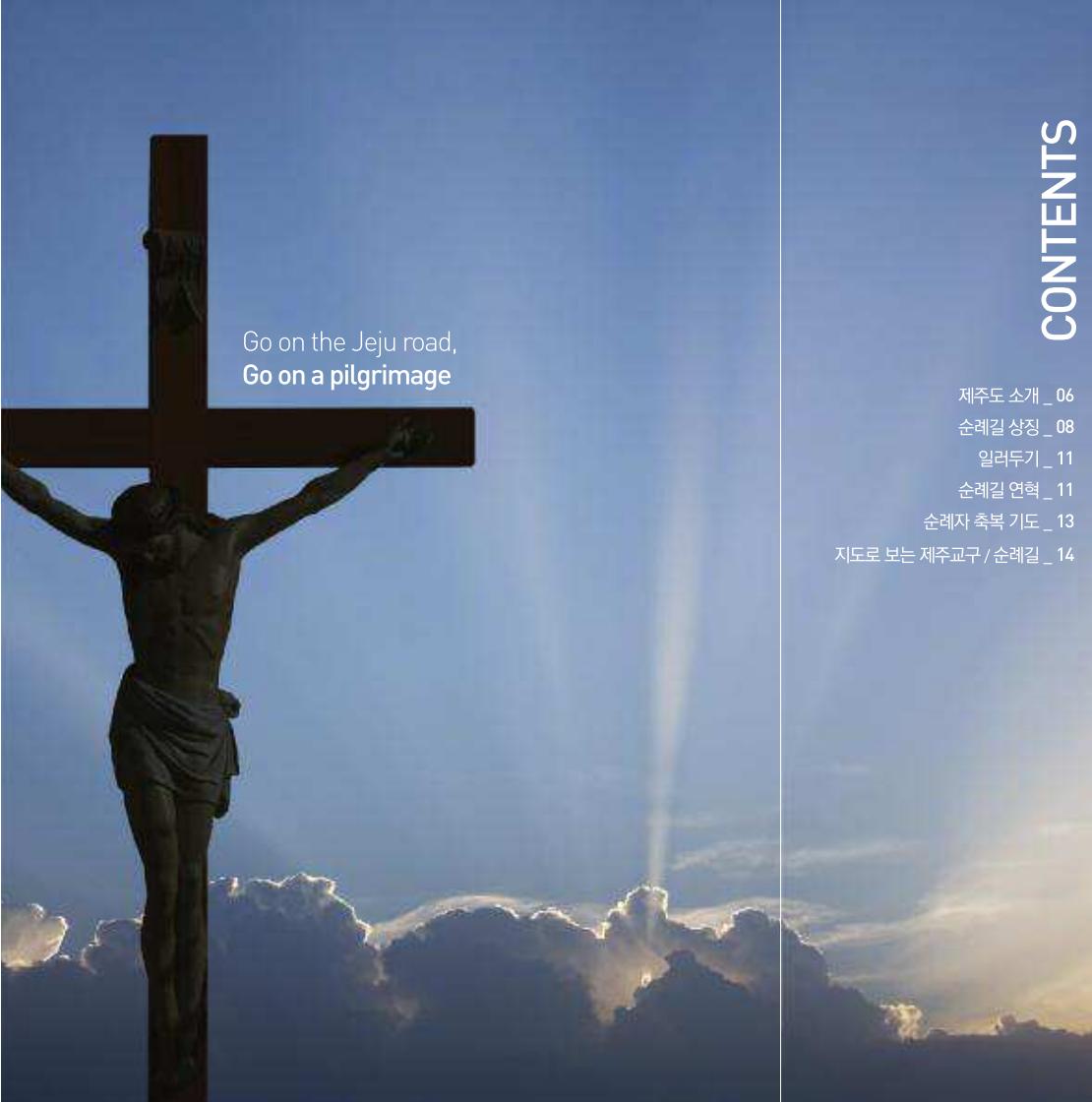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나를 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분의 품이 얼마나 넓고 따스한지  
그 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 위원회



중앙 주교좌성당



Go on the Jeju road,  
Go on a pilgrimage

## CONTENTS

-  16 **빛의 길**  
고산성당, 용수성지, 신창성당
-  32 **하눈성당길**  
서귀포성당, 하눈성당터, 면령의 집, 서귀복자성당
-  46 **김기량길**  
조천성당,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현장비
-  58 **정난주길**  
정난주 마리아묘(대장성지), 모슬포성당
-  70 **신축화해길**  
황사평성지, 화북성당, 중앙 주교좌성당
-  86 **이시돌길**  
이시돌성지, 클리라수녀원/금악성당,  
조수공소, 청수공소
-  110~166 **순례길 거점 외 본당**
- 112 **제주시 서부지구**  
서문성당/추자공소, 신제주성당, 연동성당,  
노형성당, 정난주성당, 하귀성당
- 128 **제주시 동부지구**  
동문성당, 광양성당, 김기량성당, 동광성당,  
김녕성당/세희공소
- 140 **서부지구**  
애월성당, 한림성당, 무릉공소, 마라도경당,  
화순성당
- 150 **남부지구**  
중문성당, 강정공소, 가나안공소, 효돈성당,  
남한성당, 표선성당, 성산포성당/우도공소
- 167 **순례길 스탬프 모음**
- 170 **MEMO**

동경 126도 08분 ~ 126도 58분  
북위 33도 06분 ~ 34도 00분

**기후(연평균)**  
강수량(mm) 제주 1,584.9 서귀포 2,393.3  
평균기온(°C) 제주 15.6 서귀포 16.9

**총 면적** 1,849.2km<sup>2</sup>

**인구** 2019.12.31. 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총 670,989명**  
제주 489,405 서귀포 181,584  
남 337,345 여 333,644



김대간길 - 자구내포구 가는 길

제주도는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환경과 옛 탐라국의 역사가 깃든 특이한 민속문화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한 관광성을 자랑한다. 대륙(러시아, 중국)과 해양(일본, 동남아)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이다.

지리적으로는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풍부한 동·식물을 거느린 산림과 계곡, 기암과 소연(沼淵), 기생화산과 분화구, 동굴과 초원 등 오밀조밀한 자연경관이 천혜의 아름다움을 빛어낼 뿐 아니라, 섬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닷가의 기암과 폭포, 백사장과 도서(島嶼) 등 해안 일대가 천연미의 절경을 이룬다. 이들 산과 바다는 종합적인 관광기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의 모습은 삼성혈(三姓穴)에서 비롯하는 옛 탐라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유적들은 물론 토착산업과 민속, 그리고 정신문화에서 개성적인 관광성을 드러낸다.

### 三多 (삼다 / 돌, 바람, 여자)

三多란 石多(돌), 風多(바람), 女多(여자)를 말한다. 그래서 제주도를 三多島(삼다도)라고 일컫기도 한다.

### 三無 (삼무 / 도둑, 대문, 거지)

三無란 제주에는 도적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고 하여 나온 말이다. 제주인들은 예로부터 거칠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근면·절약·상부상조를 미덕으로 삼아서 도적질을 하거나 구걸을 하지 않고 집에 대문도 없이 살았다. 그런가하면 탐라의 후예이거나 지조를 지키다가 유배되어 온 빼내 높은 선비들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서 명예심을 풍기 여길 뿐 아니라 좁은 섬 안에서 서로 익히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이나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립·자조·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었으니 제주인들은 평소 근면 절약하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이루어 집의 대문도 필요 없었다. 집주인이 일터로 나갈 때 사람이 없다는 표시로 집 입구에 긴 나무를 걸쳐두면 되었다. 이 나무가 제주의 '정낭'이다.

### 三麗 (삼례), 三寶 (삼보)

三麗, 三寶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민속 토착산업을 일컬기도 하고, 식용작물·수산·관광의 세 자원을 말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제주의 따뜻한 인심·아름다운 자연·특이한 산업 구조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정평이나 있다. 한라산이 계절별로 펼치는 봄의 철쭉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과 함께 섬의 사면을 둘러싼 바다의 변화는 순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순례길 상징



그리스도의 희랍어 표기인 *XPIΣΤΟΣ*의 첫 음절인 X(영어 ch)와 P(영어 p)의 이미지를  
십자가 이미지와 연결시켜 자연스럽게 천주교 순례길이  
연상되도록 디자인했다.

길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교차로와  
회전되며 무한히 나아가는 십자가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온 길을 뜻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네 신자들이 걸어갈 길을  
상징한다.

Color는 제주의 골색을 주색으로 하는  
PANTONE Orange 021C와  
선(善), 신(神), 천국, 천사, 순수 등 밝고 맑고 순결한  
영혼을 상징하는 흰색을 사용했다



## 순례길이란?

바람 속에 피어난 신앙의 꽃!  
11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목상의 시간, 순례길

제주는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곳이다. 눈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자연이 그림처럼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제주는 걸을수록 건강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제주에 천주교 제주교구는 '순례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순례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 순례길은 목주기도가 지향하는 네 가지 '신비'의 빛의 길(김대건길), 환희의 길(하노 성당길), 영광의 길(김기량길), 고통의 길(정난주길)에다 화해의 길(신축화해길)과 은총의 길(이시돌길)을 덧붙여 각각의 길과 관련된 대표적 지명이나 인명, 사건명 등 고유명사를 별칭으로 정하여 길의 특색을 가미했다. 이 여섯 길은 모두 제주 천주교의 역사와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저마다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느낌과 체험을 안겨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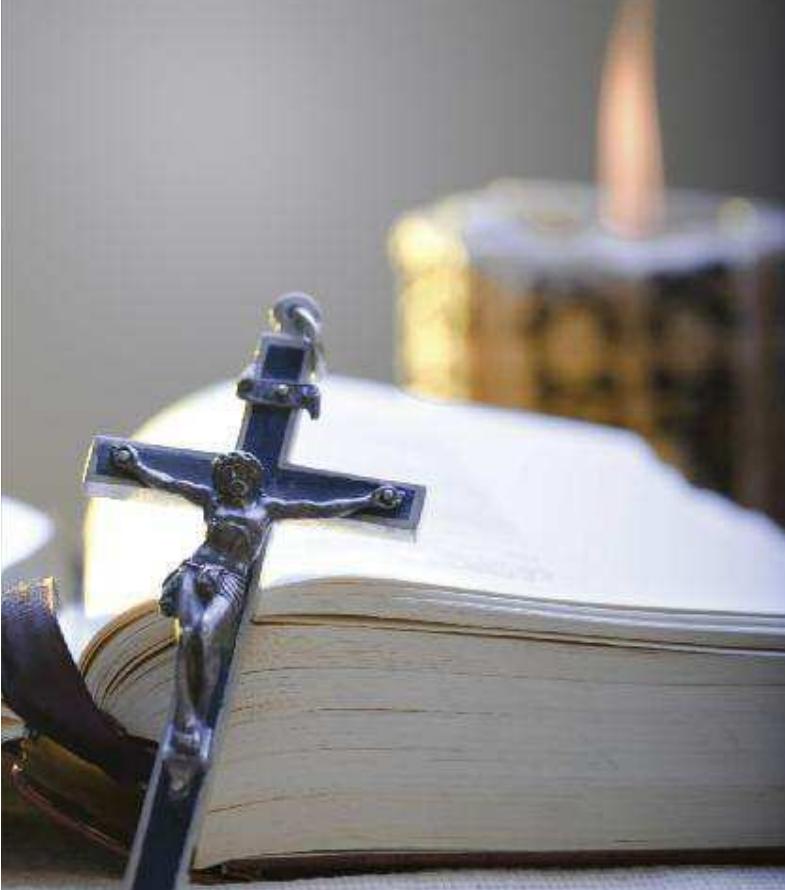
## 순례의 기원과 의미

순례(巡禮, Pilgrimage)는 하느님과 관련된

스스러운 땅을 방문해 참배를 드리는 행위이다. 순례의 기원은 뚜렷하지 않지만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월절(Pesah)과 오순절(Shavout), 초막절(Shkkot) 등 매년 세 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들이 수학한 곡식을 바치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약시대부터 성지순례는 고대 근동지방의 셈족 사이에서 행해지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관행이었다.

## 순례란, 단순한 관광이나 여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순례하는 것은 본래 지존한 하느님을 만나려 '올라가는' 행위이다. 성지뿐만 아니라 묘소나 성당 등 성역들을 순례하는 것 역시 신자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신앙을 길러주며, 또 사도직 수행에 자극을 주는 일igrm으로 매우 중요한 신심행위이다. 그래서 1990년 4월 18일, 예루살렘의 종대교주 미셀 샤비는 성지순례에 관하여 각국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는 이 서한에서 순례를 관광으로 혼동하는 나쁜 경향을 경고하면서 성지는 목상하는 장소이며,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성지에 대한 순례의 첫째 목적임을 강조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순례는 신앙과 기도 안에서 친교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이 이상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순례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지나 성역의 순례는 곧 자기 수련이며, 성지나 성역의 발전과 활성화라는 종교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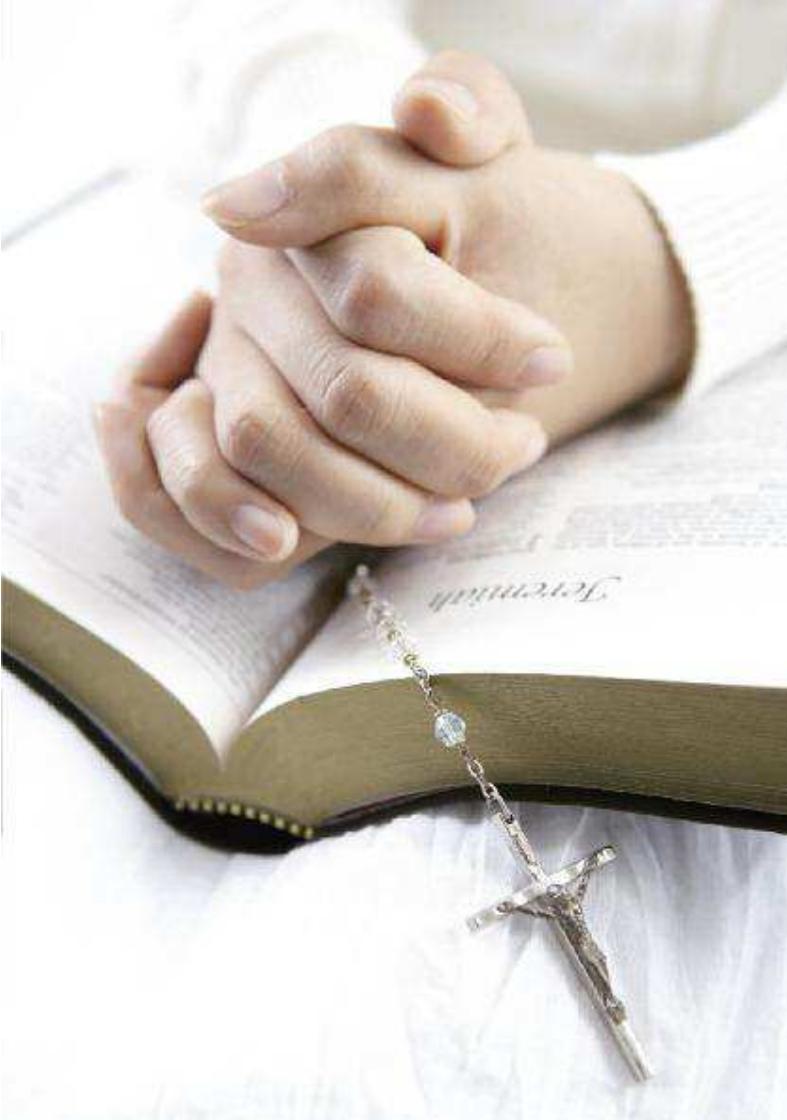


## 일러두기

- 이 책에 수록된 순례길은 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 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의 협력으로 제주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토대로 지정하였다.
- 이 책은 도보로 하는 순례길을 통해 하느님을 따랐던 선조들의 신앙의 여정을 내 삶에 되새겨 보는 '은총의 때를 가지기를 권하고 있으니, **가급적 도보로** '은혜로운 장소'를 순례하기 바란다.
- 각 순례길에는 **목주기도의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와 은총, 화해의 의미를 담았**으로 목주기도를 바치며 신앙의 신비를 깊이 느끼는 여정이 되기 바란다.
- 미사시간이나 기타 성지에 관련된 정보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기**를 권한다.
- 이 책은 **개인이 각자 1권씩**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지순례가 마무리된 후 받게 될 축복장 역시 가족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수여된다.
- 순례를 마친 후에는 성지 사무실이나 관할 성당에서 **성지순례 확인 스템프**를 찍을 수 있다. 이 책의 모든 성지를 순례하여 스템프를 찍은 순례자는 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위원회로부터 축복장을 받는다.  
※ 순례길 홈페이지 [www.peacejeju.net](http://www.peacejeju.net) 의 (축복장 신청)란 참조  
※ 스템프 설치장소는 각 길의 첫 장지도를 참조하고, 스템프 확인란은 p.167수록
- 표지 뒷면의 QR코드를 스캔 시 순례길 홈페이지와 연계되며, 순례 중 QR코드가 설치된 곳(코스 내)은 해당 위치와 주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이용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제주버스정보시스템'이나, '제주버스정보 앱', '카카오맵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 순례길 연혁





## 순례자 축복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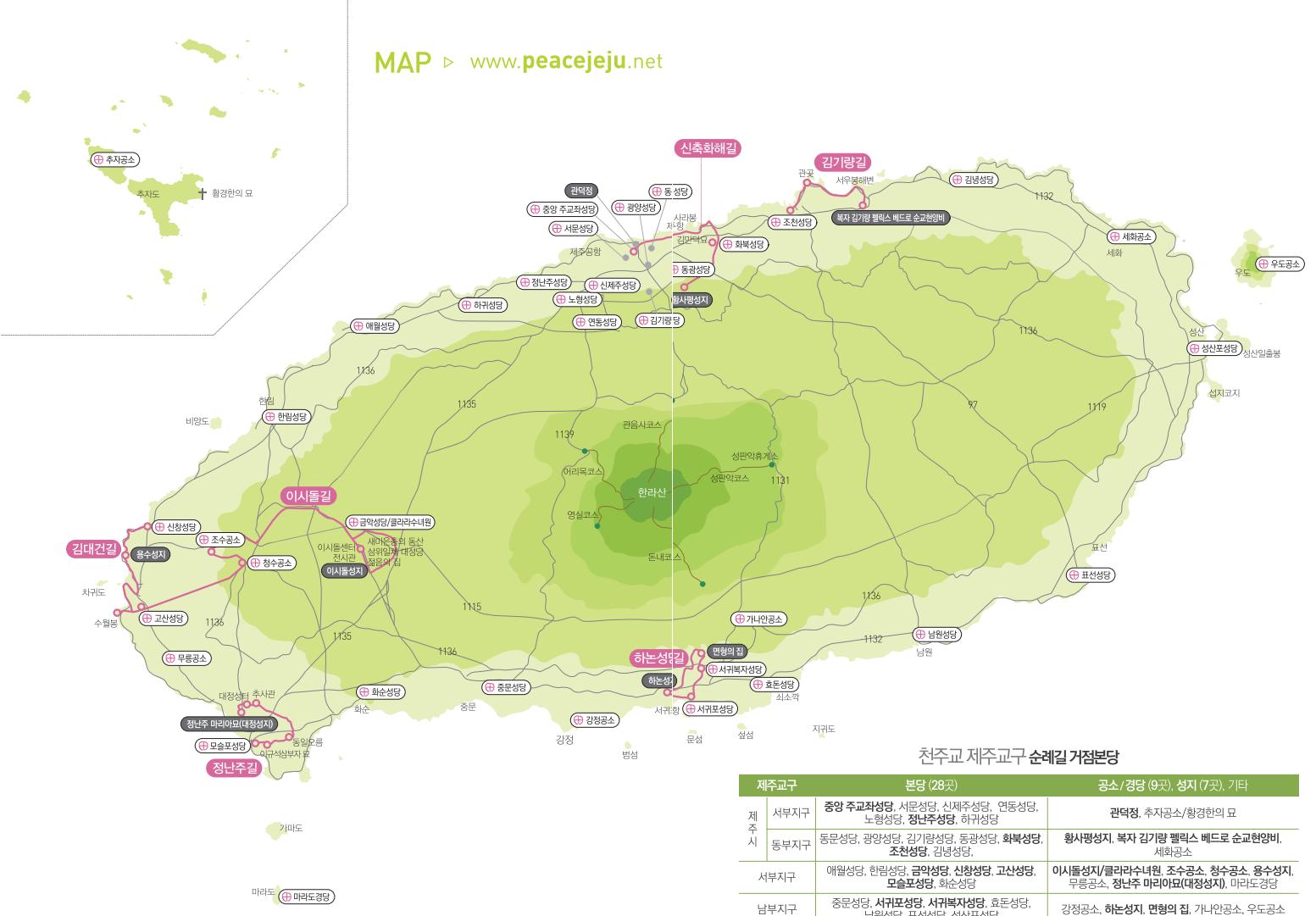
### 떠나며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니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종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의 길을 하느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어  
낮에는 구원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은총의 빛으로 밝혀 주시어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돌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충실했던 백성을 선택하시어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하느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게 하셨으니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기뻐하며 돌아온 이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과 행동으로  
모든 이에게 보여 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MAP ▷ [www.peacejeju.net](http://www.peacejeju.net)





# 김대건길

G O O N A P I L G R I M A G E

고성성당에서 시작해 유네스코 세계자연공원으로 인증된 수월봉 인근과 자구내 포구를 지나  
성 김대건 신부 묘착지인 용수성지를 둘러 본 다음 신창성당에 이르는 총 12.6km의 순례길이다.

용수포구는 김대건 신부가 1845년 8월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후 일행 13명과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서해 바다를 통해 귀국하는 길에 통령을 만나 표적한 곳으로  
고국에서의 첫 미사 봉헌한 감격적인 장소이다.

이 곳에는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성당과 기념관(p.20)이 있고,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 라파엘호를 전시하고 있으며,

김대건 신부가 간직한 '기적의 성모상본'에 있던 성모상이 아와에 건립되어 있다.



## • 고성성당 미사시간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1 ☎(064)773-2004

월요일 06:30 / 화요일 19:30 / 수요일 10:00, 19:30 / 목요일 10:00  
금요일 19:30 / 토요일 19:30 / 주일 06:00, 11:00, 16:00, 19:30

## • 신창성당 미사시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28 ☎(064)773-1044

월요일 06:30 / 화요일 19:30(조수공소, 용수공소 하절기 20:00) / 수요일 19:30(하절기 20:00)  
목요일 06:30(첫 목요일 19:30, 하절기 20:00) / 금요일 19:30(하절기 20:00)  
토요일 19:30(하절기 20:00) / 주일 07:00, 10:00, 19:30(조수공소 하절기 20:00)

## • 용수성지 미사시간 제주시 한경면 용수1길 108 ☎(064)772-1252

화요일 19:30(하절기 20:00) / 주일 19:30(하절기 20:00)

\* 미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산성당 성전



### ① 김대건길의 시작 고산성당

1955년 4월 한림본당 '고산공소'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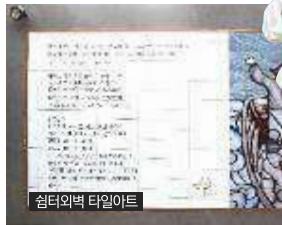
1957년 신창본당 관할로 이관.

1990년 2월 22일 본당으로 승격. 현재 청수공소를 관할하고 있다. 제주교구 순례길 중 처음 선포된(2012) '김대건길'을 기념하고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성 김대건 신부님 순례길 쉼터'를 마련, 2016년 11월 20일 축복식을 거행했다.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1 ☎ [064]773-2004



김대건길 선포식



쉼터외벽 타일아트

## 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수월봉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제주도에서 바람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기상대가 자리 잡아 한반도로 향하는 모든 바람을 관측한다. 높이 77미터의 나지막한 오름이지만 정상에 서면 차귀도의 서쪽 바다와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 ③ 김대건 신부가 제주에 처음 달은 섬 차귀도

수월봉 정상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차귀도는 김대건길 내내 함께하는 섬으로 보는 각도마다 다른 도양과 분위기를 선사해 준다. 깨어지른 듯한 해안절벽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룬다.



## ④ 제주도 민간등대인 도대불을 만날 수 있는 곳 자구내포구

제주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포구로서, 고산 평야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자구내 포구는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물이 풍부하여 오래 전부터 마을을 형성하였다. 자구내 포구에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등대인 도대불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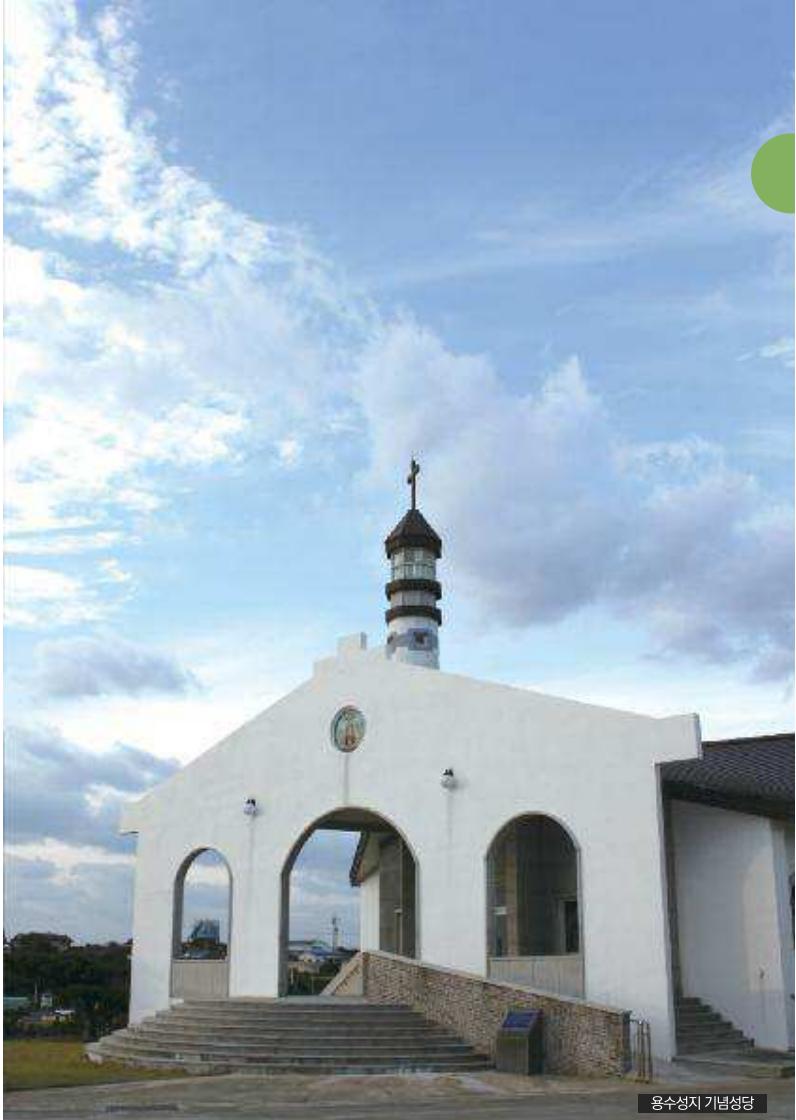
## ⑤ 제주의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 당산봉

이 오름은 분화구 안에 알오름을 지닌 복식 화산이다. 바다쪽 벼랑에는 다섯 개의 해식 동굴이 있는데, '자승문'이라 부르는 동굴 이야기가 흥미롭다. 오름 기슭에 '차귀당'이라는 신당이 있어 당오름이라 불리기도 한다.



## ⑥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과 기념성당 용수성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비롭게 형성된 이 곳 제주의 용수리 해안은 성 김대건 앤드레아 신부 일행이 귀국 시에 표착하여 첫발을 디딘 한국 천주교회사의 현장이다. 박해로 신음하는 조국에 복음의 빛을 밝히고자 사제 서품 즉시 귀국길에 오른 김대건 신부 일행을 섭리의 손길로 폭풍우 속에서 구해 이 곳 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다.



용수성지 기념성당



김대건 신부일 행은 이곳 해안에서 비밀리에 미사를 봉헌하고, 타고 온 라파엘호가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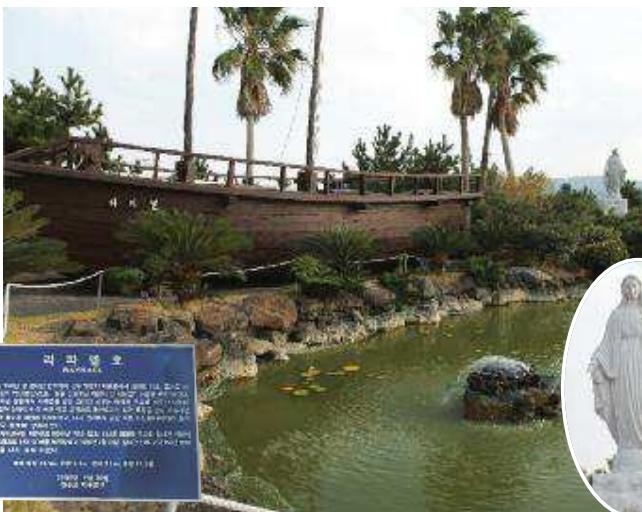
되자마자 순교의 길로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박해의 칼날 아래서 천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에 제주의 신앙 후손들은 이곳에 서려있는 하느님의 섭리와 김대건 신부의 순교정신을 길이길이 새겨두기 위해 이 기념관을 세웠다.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성당과 기념관이 견립

되어 있고,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 라파엘호를 전시하고 있으며, '김대건 신부가 간직한 기적의 성모상본'에 있던 성모상이 이외에 전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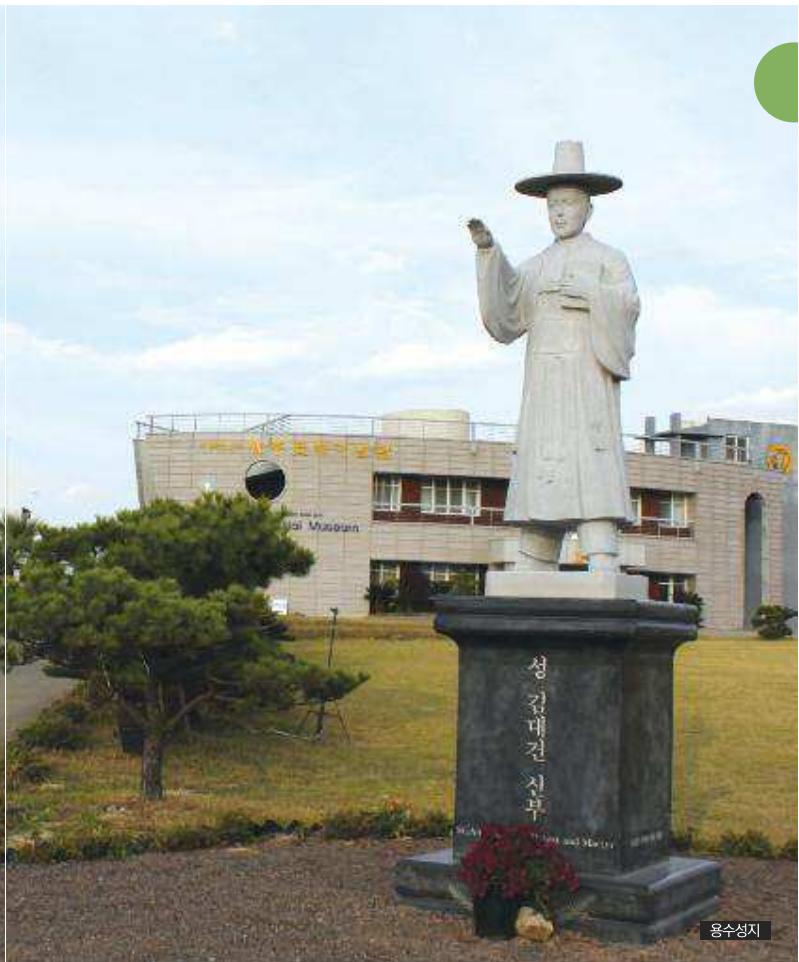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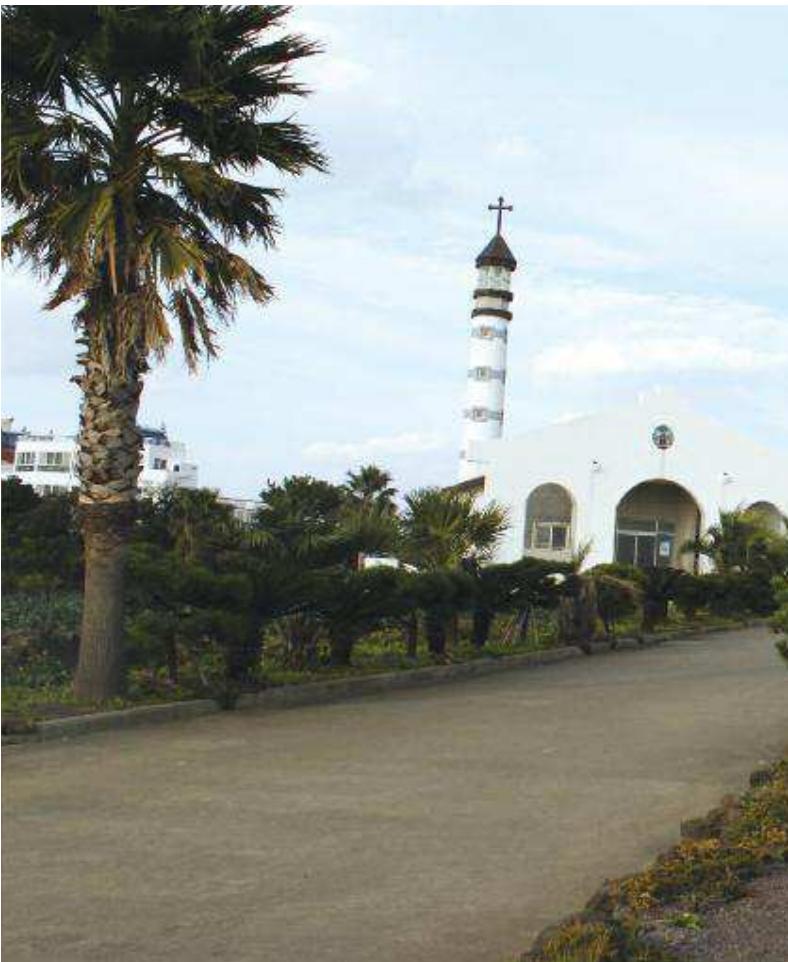
제주시 한경면 용수1길 108 ☎ (064)772-1252



용수성지 성전



유해공경실



⑦ 지아비를 그리워해 세상을 등진 여인의  
넋을 달래다 절부암



조선후기 이 바위 옆 나무에서 지아비를 그리다가 목을 매어 세상을 등지고 만다. 그러자 한 남자의 시신이 바위 아래로 훌연히 떠올랐다고 한다. 바위가 있는 동산 아래가 바다였는데, 매립되어 실감나지는 않지만 바위 주변에 서늘한 기운이 남아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시대에 이 일대에서 기와를 굽던 도요지가 있어 이곳을 통해 제주도 전역으로 실려나갔다고 한다. 용수리 포구는 김대건 신부가 1845년 8월 삼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일행 13명과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서해 바다를 통해 귀국하는 길에 풍랑을 만나 표착한 곳으로 고국에서의 첫 미사를 봉헌한 감격어린 장소이다.

⑧ 성 김대건 신부가 고국에서의 첫 미사를  
봉헌한 곳 용수포구

용수포구의 본디이름은 '지새개'다.『동국여지승람』에는 '와포'라 되어 있는데 조선



성 김대건 해안로

원래 한경해안도로라 불렸다. 2011년 12월 30일 김대건 신부의 제주표착을 기념하기 위하여 표지석 제막식을 갖고 이름을 바꾸었다. 용수성지로부터 신창성당까지 6km 가량이 이어진다. 가톨릭신문은 2012년도 한국교회 10대 뉴스에서 제주교구의 '성 김대건로' 탄생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김대건신부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는 24세가 되던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31일, 페레을 주교와 더불어 신부 등 일행 13명과 함께 상해항을 출발하여 귀국하던 도중 큰 폭풍 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용수리 해안에 표착한 뒤 이곳에서 고국에서의 첫 미사를 봉헌했다. 이후 배를 수리해 전라북도 금강 하류 나바위로 입국한 후 경기도 용인에서 사목활동을 하다 외국 선교사 일행을 돋고 돌아오던 도중 관군에게 불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고, 1846년 9월 16일 서울 한강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25세였다.



## ❾ 여정의 끝 신창성당

제주교구에서는 세 번째로, 제주 서부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신앙공동체로서 의의가 깊은 곳이다. 복음화율이 높아 한때 60~70%의 교세를 나타냈다. 1935년 제주 본당의 '신창공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에 '용수공소'가 설정, 1951년 4월에 '신창 준본당'으로, 이어 1952년 6월 29일에 '신창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954년에 '한림본당'이 설립되면서 공소로 격하되었다가 1957년 4월에 다시 본당

으로 승격되었으며, 이에 앞선 1955년 고산 공소, 1956년 청수공소, 1957년 판포공소와 조수공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90년 2월 22일 고산본당이 분리되면서 청수공소는 새 본당으로 이관되었고, 판포공소는 1994년 문을 닫았다.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28 ☎ (064)773-1044



신창성당 세례대  
세례성사를 침전할 때 사용하는 세례수를 담아 보관해 두는 곳



신창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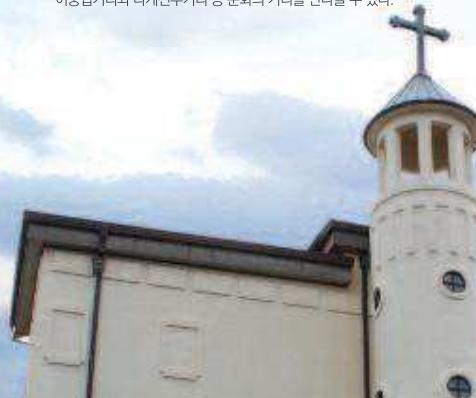
## 환희의 길

# 하논성당길

G O O N A P I L G R I M A G E

서귀포성당에서 시작해 서귀포 신앙의 모태인 하논성당 터와  
홍로성당이 있었던 면령의 집을 거쳐 다시 서귀포성당으로 귀착함으로써  
시작과 끝이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하는 총 11.0km의 성찰의 길이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천지연 산책로를 지나 산남지역 신앙의 뜻자리인 하논성당터와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하논분화구를 거치게 되고  
115년전 티캐신부가 하논성당을 이전하면서 걸었던 길(티캐신부길), 솜반내와 춤단소나무길을 지나  
면령의 집(옛 홍로성당 p.40)에 도착한다.  
서귀포성당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서귀복자성당(p.42)과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와 티캐신부거리 등 문화의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 서귀포성당 미사시간 서귀포시 태평로 398 ☎(064)762-3444  
월요일 06:00 / 화요일 20:00 / 수요일 20:00 / 목요일 06:00 / 금요일 20:00  
토요일 08:00, 17:00(어린이 미사) / 주일 06:00, 08:30, 10:30(교종미사), 20:00
- 서귀복자성당 미사시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17 ☎(064)733-5523  
월요일 06:30 / 화요일 19:30(하절기 20:00) / 수요일 10:00 / 목요일 11:00(강정. 단 첫 목요일은 19:30)  
금요일 19:30(하절기 20:00) / 토요일 19:30(청소년, 청년, 하절기 20:00)  
주일 06:30, 11:00, 16:00, 19:30(하절기 20:00)

※ 미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산남지역의 모태성당 서귀포성당

1900년 하늘성당 설립을 시작으로 1902년 홍로성당으로 이전, 1937년 서귀포의 중심 지인 현재의 자리에 정착하여 서귀포시 지역의 6개 본당으로 분리되어 나가는 등 산남 지역의 실질적인 모태성당이다.

서귀포시 태평로 398 ☎ [064]762-3444



1930년대 홍로성당



서귀포성당



서귀포성당 성전



**서귀포성당 자비의 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의 특별하나님" (2015.12.8 ~ 2016.11.20.)을 선포하고, 세계의 모든 주교좌 성당과 함께 지역의 특정한 성당에 '자비의 문'을 만들고 1년 동안 개방하여 순례자들에게 전대사를 주도록 은사를 주었다. 제주교구에서는 중앙 주교좌성당, 서귀포성당, 조천성당, 금암성당이 지정되었다.

### 서귀포성당 하논카페 & 갤러리



### ② 뛰어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천지연 산책로와 호근마을 입구

천지연 산책길은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아열대성과 난대성 상록수가 우거진 천지연 계곡을 끼고 도는 윗길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논성당 조감도

### ③ 산남지역 신앙의 봉사자 **하논성지**

1899년 하논공소로 설립, 이듬해 김원영 신부가 부임하며 산남지역 최초의 본당이 되었으나 1901년 '제주신축교안'으로 많은 본당 신자들이 희생되면서 성당이 폐쇄된다. 신축교안 1년 뒤 부임해온 타케신부가 1902년 본당을 서홍동의 홍로성당으로 이전함(p.41)으로써 하논성당은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다.



### ④ 살아있는 자연석물관 **하논분화구**

3~4만년 전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생긴 분화구. 모든 단성화산 분화구 중 최대 규모이자 한반도 최대의 희귀 분화구로 꼽히고 있다.

※ **하논이문**? 큰 눈을 뜻하는 우리말 '한' 눈에서 유래한다. 제주의 대표적인 마르행 분화구로 바닥에 물이 흘러나와 바농사가 가능했다.



## 타케신부길 하늘성당터에서 홍로성당터에 이르는 길(4.2km).

타케신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프랑스 외방선교회 출신, 한국명 임택기)는 하늘성당 제3대 주임신부로, 무려 7천여점에 달하는 식물표본을 채집하여 유럽과 미국의 유수한 연구소와 대학에 소개하였고, 왕벚나무를 비롯해 2천여 종의 제주식물과 제주의 자연가치를 세계에 알린 자제이자 식물학자로서, 그가 발견하여 학명에 'Taquetii(타케)'라는 이름이 들어 간 식물만도 무려 20여종이나 된다. 또한 제주 자생 왕벚나무를 일본에 있는 동료 신부에게 보내주고 답례로 받은(1911) 미장온주 14그루는 제주 최초 온주밀감의 시초가 되어 현재에도 제주를 대표하는 생명산업이 되었다. 이에 마을(서홍동) 주민들은 타케신부의 온주밀감 도입 스토리를 담아 '감귤의 본향 기념비'를 서홍마을회관에 세웠다(2000). 2019년 4월, 108년 수령의 마지막 한 그루마저 고사하자, 후계목을 그 자리에 이식하여 '타케신부 감귤나무 시원지 보존 기념비'를 세우고, 고사목은 영구보존 처리하여 '홍로의 맥'으로 명명, 면형의 집 성당 입구에 전시(p.41)되었다.



타케신부는 신축교안(1901)으로 피폐해진 하늘성당을 홍로마을로 이전하고 여러 마을에 공소를 설립하는 등 산남지역의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업적을 기리며, 서귀포성당 타케신부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하늘성당터에서부터 홍로성당터(현 면형의 집)에 이르는 길을 '타케신부길'로 명명(2016)하였다. 현재 대구 대교구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 ⑤ 도심지 내 휴식지로 각광받고 있는 하천 솔반내

서귀포 70경으로 꼽히며 도심지 내 휴식지로 각광받고 있는 하천이다. '솔반' 혹은 '선반'이라고 부르지만 지명 유래는 아직 수수께끼이다. 이곳의 용출수가 흘러 다른 용출수를 만나고 계속 흘러 급기야 천지연폭포를 이루니, 솔반내는 천지연폭포의 젖줄인셈이다.



## ⑥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멋진 길 흙담소나무길과 후박나무 가로수길

100년 수령의 소나무 거목들이 어깨동무를 하듯 줄지어 서서 빛내는 풍경이 일품인 흙담소나무길. 전국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선정(2002) 되기도 한 이 길을 지나면 이번에는 후박나무들이 가로수로 늘어서길을 안내한다. 제주도에서는 흔히 가로수로 심지만, 남부지방을 벗어나면 보기 귀한 나무이다.



## ⑦ 서귀포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길 홍로현청길

예전에 홍로현청이 있었던 마을. 좁다란 골목길에 툭 뛰어나온 오래된 팽나무와 등백나무 그리고 길 위로 가지를 늘어뜨린 갑나무들이 키를 맞대고 있고, 돌담을 따라 순례길을 걷는 사람과 옛 골목들이 잘 어울리면서 남국의 정취를 더해준다. 서홍마을회관에는 타케신부의 '감귤의 본향'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 ⑧ 서귀포 사람들의 식수로 이용되었던 용천수 지장샘

장샘은 훌륭 솟아나지는 않는다. 조용히 흐르되 언제나 같은 양으로 끊임이 없다. 마을에는 '녀도 말고 델도 말고 지장새미만큼만 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술사 호종단이 제주섬의 혈을 끓으려 왔을 때 지장샘의 물혈을 끓으려다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홍로는 지장샘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물 자원이 좋은 편이어서는 든지대가 많으며, 번성하고 풍요로웠다.





면형의 집



면형의 집 성전

## ⑨ 홍로본당이 있던 곳 면형의 집과 김귤나무

목상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피정의 집으로 옛 홍로성당이 있던 곳. 보호수로 지정된 녹나무 거목이 눈길을 끈다. 타케신부에 의해 도입된 제주 최초의 감귤나무가 고사하여(p.38) 후계목이 이식되어 있다. 영구보존 처리된 고사목은 '홍로의 맥'으로 명명되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성전에는 제주도 모형으로 이루어진 제주석 제대가 있으며, 그 반쪽은 현재 합덕의 '김기량길' 순례길 표지석(p.57)으로 세워져 있다.

서귀포시 지장샘로 19  
☎ (064)762-6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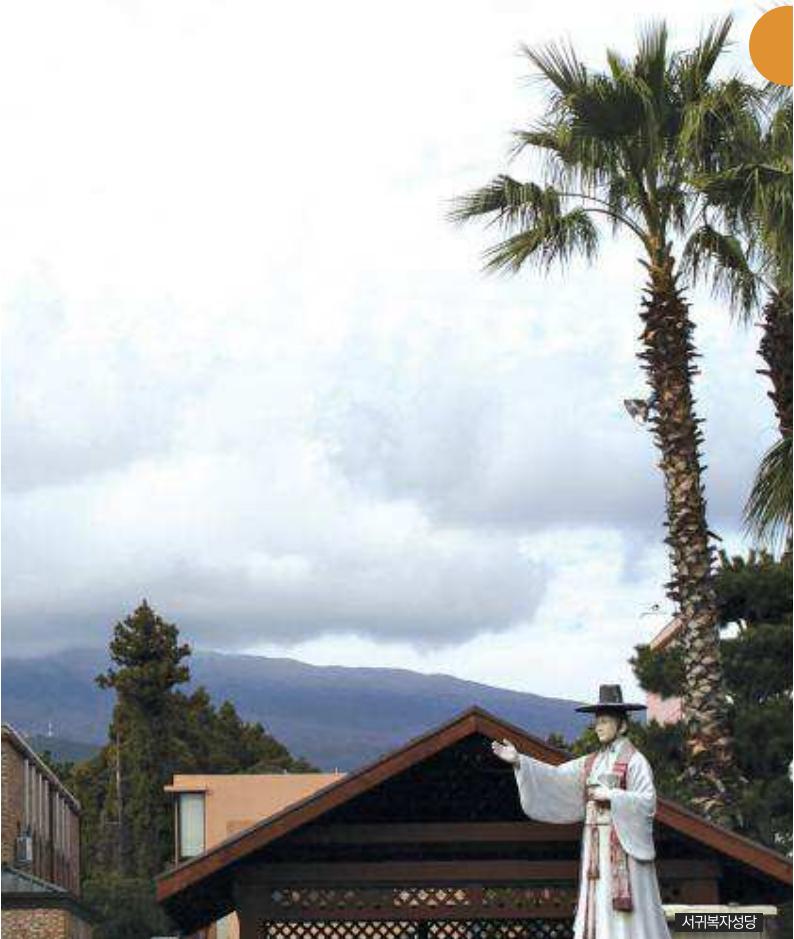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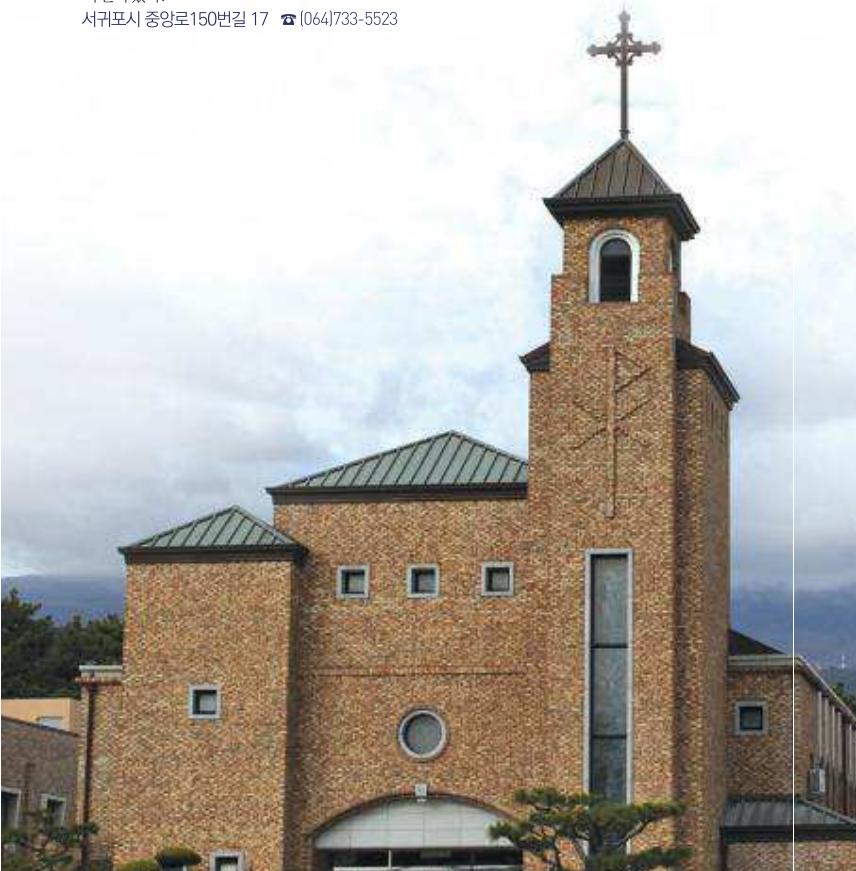
제주 최초의 감귤나무 고사목



⑩ 서귀포시 동흥동에 위치한 **서귀복자성당**

1970년 서귀포본당에서 '서귀중앙성당'의 명칭으로 분리 설립(p.44), 1980년 새 성전을 축성하면서 '서귀복자성당'으로 개칭되었다. 1988년 2월에 중문본당을 분리, 2001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17 ☎ [064]733-5523





## ⑪ 서귀중앙성당 서귀복자성당옛터

서귀포성당에서 분리설립된 '서귀중앙성당'이 10여 년간 있었던 곳. 현재의 새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명칭도 '서귀복자성당'으로 개칭하였다. '서귀포 민주항쟁 기념비'와 '양용찬 열사 추모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 양용찬 열사 추모비

(1966.9.19.~1992.11.7.)



'세계의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 제주도를 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1992년 11월 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와 민정당 타도를 외치고 분신하였다.

## ⑫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이중섭거리

360여 미터 길이의 언덕길로 이루어진 거리는 가로등, 벽화, 화단, 바닥 등이 운동 이중섭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아와 전시대, 판화 체험방, 창작스튜디오, 공예공방, 갤러리 카페 등도 이중섭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언덕 중턱에 들어선 이중섭미술관에서는 전시회가 연일 열리고, 쇠쉽과 문집이 한 눈에 보이는 언덕 주변에는 이중섭이 거닐었다는 수백년 된 팽나무가 눈길을 끈다.

### 뜨거웠던 서귀포의 6월 항쟁 서귀포 6월 항쟁기념비

1987년 '독재제도'의 합성으로 여름을 뜨겁게 달군 서귀포 항쟁은 제주에, 그리고 국토 최남단인 서귀포에 까지 촉발되었다. 어린이 놀이터였던 이 곳은 시위가 쳐을 촉발된 상징적 장소로 당시 항쟁의 뜻을 기리는 기념상징물이 세워져 있다.





## 영광의 길

# 김기량길

G O O N A P I L G R I M A G E

조천성당을 시작으로 함덕마을을 거쳐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순교현장에 이르는  
총 9.3km의 길로 제주의 해안도로가 안겨주는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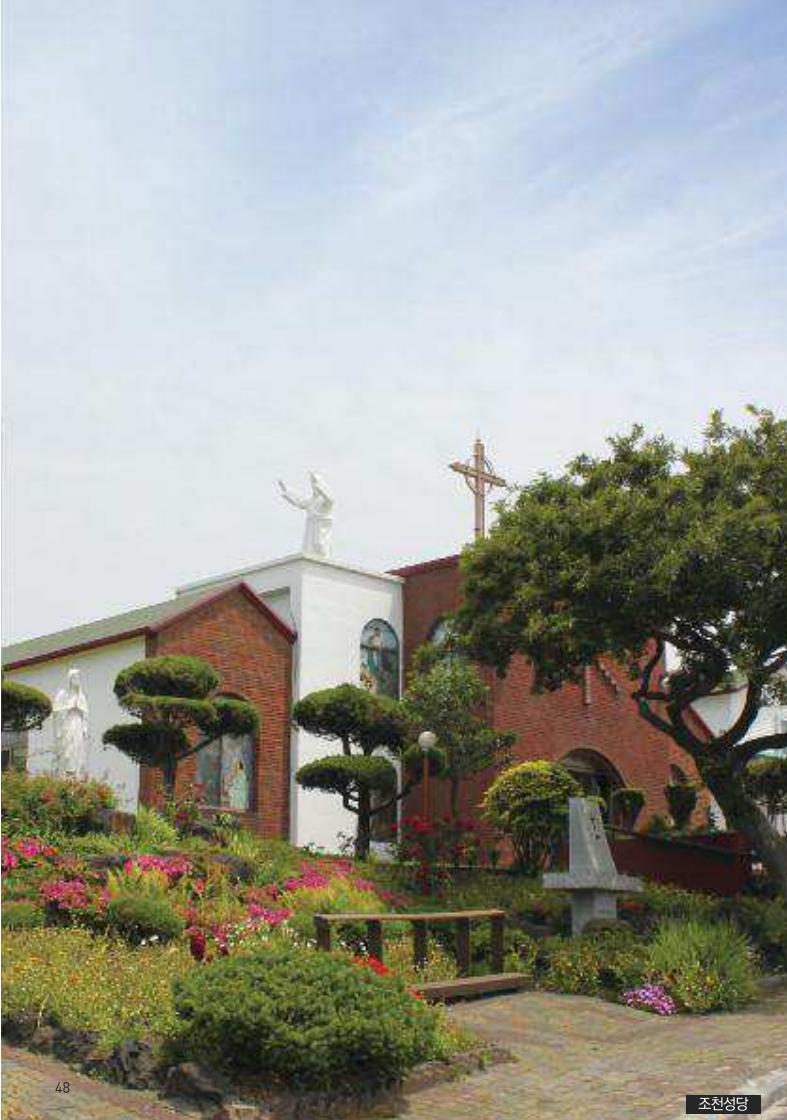
- 조천성당 미사시간 제주시 조천읍 조천2길 19 ☎(064)784-6173  
월요일 06:00 / 화요일 19:30 / 수요일 19:30 / 목요일 06:00  
금요일 19:30 / 토요일 19:30 / 주일 10:30, 16:00, 19:30

\* 미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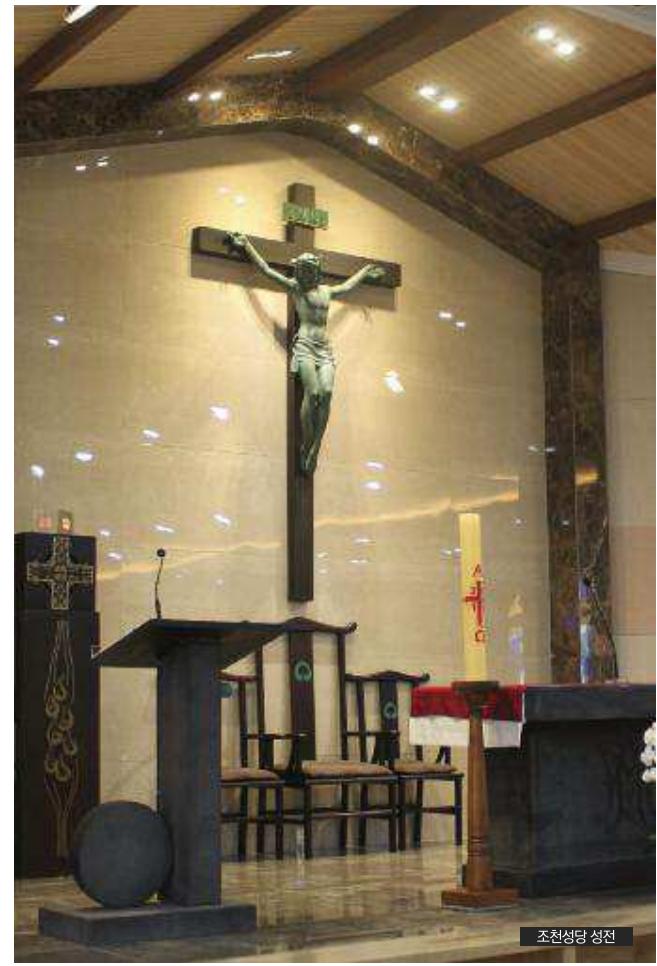
제주에 처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린 '제주 최초의 신자'이자 '최초의 순교자'인 김기량 펠릭스베드로. 2001년 그에 관한 귀중한 사료들이 대거 밭굴되면서, 제주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는 2002년 1월부터 김기량 시복시성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2003년 1월 조천 성당에, 2005년 4월에는 그의 고향인 함덕에 순교현장비를 세웠다. 2006년 9월 10일 김기량 순교 140주년 기념 산양대회를 열었고, 2007년 11월부터 그의 신앙과 순교정신을 현扬하고 시복시성을 위해 전 신자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8월 16일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복자품에 오르게 되었다.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현장비



조천성당



조천성당 성전



조천성당 내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기념비

## ① 김기량길의 시작 조천성당



1990년 본당으로 신설된 조천성당은 제주 교구의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이다. 언덕에 위치해 있어 제주도의 푸른바다와 평화로운 마을 그리고 조천포구의 멋진 풍경을 한 눈에 담아볼 수 있다.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비가 세워져 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2길 19 ☎ [064]784-6173

## ② 옛 관리들의 기록을 적은 비(碑)들이 모여 있는 곳 조천비석거리



제주도 기념물 제31호(1976년 9월 9일). 제주목사나 제주관관 등 지방관리들의 부임, 또는 이임시 이들의 공적과 석별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건립한 비 7기가 남아 있다. 모두 양 기둥을 세우고 머릿돌을 올린 모습이다.

## ③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 연북정 / 조천포구

조천성진과 연북정이 세트처럼 인접해 있다. 김기량(p.56)은 홍콩에서 세례를 받은 뒤 바로 이 곳을 통해 제주로 귀환(1858년 5월 15일)한다. ‘연부’은 북쪽에 계신 임금에게 사모의 충정을 보낸다는 뜻이며, 조천포구는 화북포(p.77)와 더불어 관원이나 도민들이 본토로 드나드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순풍을 기다리며 머무는 휴식처이기도 하였다.

금당포는 불로장생을 구해오라는 진시황의 명을 받은 서복선단이 처음 도착한 곳으로, 서복이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조천(朝天)’이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겼다 하며, 조천바위는 고려시대 조천관을 건립하면서 매몰되고, 이후 금당포는 조천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표류로 인해 ‘천주교’라는 새로운 신앙세계를 만나고 돌아온 김기량의 벽찬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④ 신흥포구와 조천포구 사이의 해안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관꽃과 불턱, 환해장성**

'관꽃'은 제주 본섬에서는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고려시대 조천포구에 조천관이 두어졌을 때 조천관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하여 관꽃이라 이름 붙여졌다. '제주의 율돌목'이라 할 만큼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파도가 거센 곳이다. 신흥포구에서 서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옛 해녀털의장인 '불턱'이 어여쁜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길게 축조된 '환해장성'의 흔적을 통해 세월의 흐름도 감상해 볼 수 있다.

**⑤ 고즈넉한 정취가 아름다운 곳 신흥포구**

김기량길 코스의 중간에 위치, 고즈넉한 정취가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곳. 포구 안은 용천수가 솟아나고 포구 밖 넓은 백사장과 함께 펼쳐진 그림 같은 해안선이 아름답다. 자연포구의 원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바다에 잠긴 독특한 방사탑에는 마을의 큰 재앙을 막아내길 바라는 민초들의 토속신앙이 짓들여져 있다.



**⑥ 제주의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  
서우봉과 함덕해변**

아기자기한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고 올라가면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사람들 의 발길이 잦다.



김기량의 생가로 추정되는 곳. 고운 백사장과 얕은 바다 속 패사층이 만들어내는 푸른 빛 바다가 함덕백사장, 서우봉과 어우러져 있다. 아름다운 해안과 오름을 배경으로 자라난 김기량은 자연스레 바다를 무대로 배를 타고 장사하는데 익숙하였다. 표류의 와중에도 바다는 그를 구해준 은총의 터전이었다. 서우봉은 해발 113.3m로 높지 않지만





제주교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60주년 기념 성모상



**⑦ 제주출신 최초의 천주교 신자이며 순교자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현장비**

제주사람으로 처음 세례를 받았으며, 제주 최초의 순교자인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태어났다.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던 중 병인박해(1866) 때 통영의 계성(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가슴 위에 대못이 박히는 처형을 당하여 51세(1867) 나이로 순교하였다. 제주교구는 제주 선교 100 주년(1999) 기념사업의 하나로 2005년 4월 24일, 그의 고향에 부지를 마련하여 순교현장비를 세웠으며, 2015년 12월 12일 '제주

교구 레지오 마리에 도입 60주년 기념 감사 미사 및 성모상과 기념비 축성식'을 가졌다.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는 천주가사를 지어 만민평등과 형제애를 드러내었다.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1816-1867)  
죽일 : 5월 29일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시성을 위한 기도**

- 생명의 원천이시며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척박하고 외딴 섬 제주에 신앙의 선물을 내려 주셨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셨나이다.
- 사랑 지극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 고장의 구원을 위해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를 선택하시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으니 자비로우신 섭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 이 고장의 첫 영세자인 그는 1866년 병인박해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용감히 증거하며 피흘려 순교하였나이다.

●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를 성인의 반열에 들게 하시어 주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복음전파와 신앙증거의 귀감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순교자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고통의 길

# 정난주길

G O O N A P I L G R I M A G E



• 모슬포성당 미사시간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 22 ☎[064]794-2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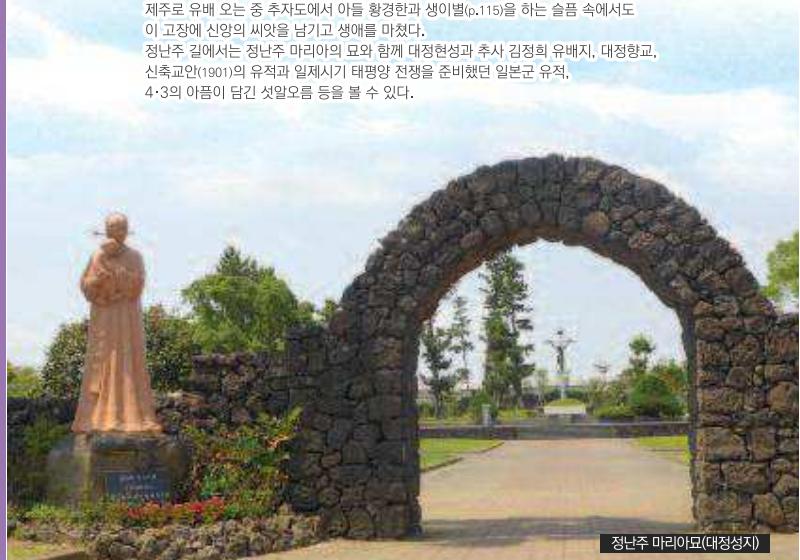
월요일 06:30 / 화요일 19:30 / 수요일 19:30 / 목요일 06:30  
금요일 19:30 / 토요일 15:30, 19:30 / 일요일 06:30, 09:00, 11:00

※ 미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난주 마리아묘'에서 시작해 '모슬포성당' 까지 이르는 총 13.8km의 순례길이다.

정난주 마리아는 남편인 황시영(황례시오)의 백서사간으로 1801년 신유박해에 제주로 유배 오는 중 주자도에서 아들 황경한과 생이별(p.115)을 하는 슬픔 속에서도 이 고장에 신앙의 씨앗을 남기고 생애를 마쳤다.

정난주 길에서는 정난주 마리아의 묘와 함께 대정현성과 추사 김정희 유배지, 대정향교, 신축교안(1901)의 유적과 일제시기 태평양 전쟁을 준비했던 일본군 유적, 4·3의 아픔이 담긴 설일오름 등을 볼 수 있다.





정난주 마리아묘



### ① 천주교 대정성지 정난주 마리아묘

제주목 관노로 유배된 정난주 마리아는 온갖 시련을 신앙으로 이겨 냈으며, 풍부한 교양과 학식으로 주민들을 교화시켜 노비 신분에도 불구하고 '서울 할머니'라 불리며 이웃들의 존경을 받았다. 신앙만을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37년 동안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다가 1838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유해를 이곳에 안장, 신앙의 증인으로 추모하고 있다.



1970년 정난주 마리아묘

### ②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돌담과 소박한 석상 대정현성과 돌하르방

보성초등학교 주변에는 여느 돌담과는 다른, 좀 더 웅장하고 세월의 두께가 느껴지는 돌담이 있다. 바로 조선시대 제주의 삽읍성 가운데 하나였던 대정현성의 성담과 성문 입구의 소박하고 귀여운 돌하르방이다. 1418년에 축조 대정현성은 둘레 4860척, 높이 17척, 치성6, 용성3, 문루 등으로 구성됐으며, 18동의 관아 건물이 있었다.

### ③ 대정골의 유일한 못 대정우물터

'두레물'이라 불리었으며, 명관이 추대되면 물이 막혔다가도 융출하고, 그렇지 못하면 융출되던 물도 금세 막라붙었다 한다.





김정희 추사 작거지

#### ④ 추사 김정희가 유배생활을 하던 곳 김정희 유배지 추사관

대정현성 동문자리 안쪽에 자리잡은 김정희 유배지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였던 추사 김정희가 유배생활을 하던 곳이다. 김정희는 이 곳에 머물면서 추사체를 완성하고 세한도를 비롯한 많은 서화를 그렸으며, 제주지방 유생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치는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 ⑤ 넓은 들판에 세워진 돌탑 방사탑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방사탑은 풍수지리상으로 보아 마을의 혀한 곳이나 액을 비롯한 곳은 것들이 들어올 만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위치한다. 이 탑을 세움으로써 마을의 인명(人命)·가축·재산 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돌탑의 축조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마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나 인력, 기술 등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참여한다.



#### ⑥ 조선 시대 지방 관립 학교 대정향교

건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의 기사를 고려해 볼 때, 대정현이 설치된 2년 뒤인 1418년(태종 18) 또는 1420년(세종 2) 현성(縣城) 안에 세워진 듯하다.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훈련병의 숙소로 이용되었다가 1978년 대개적인 보수가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서부 지역 유림들의 활동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학교와 관련된 전적류와 고문서, 현판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 시대 대정 향교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⑦ 안덕면 사계리의 형제해안로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에 뽑힌 형제해안로를 따라 걷다 보면 둥글게 둥글게 둑아가고 있는 검은 바위 위로 거대한 퇴적암들이 마치 용암들의 이불인 양 덮고 있고, 다시 그 위에 모래가 덮여 있다. 해안가에는 검은 모래들과 이끼 낀 작은 돌들이 갯가를 가득 채우고 있고, 작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지에 이른다.



공룡 발자국 화석 발견지

## ⑧ 일본군 고사포진지가 있는 알오름

동알오름, 섯알오름, 섯알오름을 통틀어 알오름이라 한다. 꼭대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설치한 고사포 진지가 있고, 그 남쪽 기슭에는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학살터가 있다. 서쪽에는 일제 강점기에 이용했던 비행장 터와 병기�이 있다.



## ⑨ 한국전쟁의 아픔 섯알오름 위령탑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주 서부지역의 예비 검속자 218명이(과거사위원회 발표) 억울하게 학살된 곳이다. 위령탑 뒤에는 일본군의 탄약 창고 터로, 해방 후 미군이 폭파하여 생긴 용덩이다.



## ⑩ 일본군 전투기 격납고 알뜨르 비행장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삼모리 송악산 근처에 있는 비행장이다. 알뜨르는 '아래 벌판'을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들은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전투기 격납고를 건설하였다.

비행장, 관제탑, 대공포진지, 격납고 등이 보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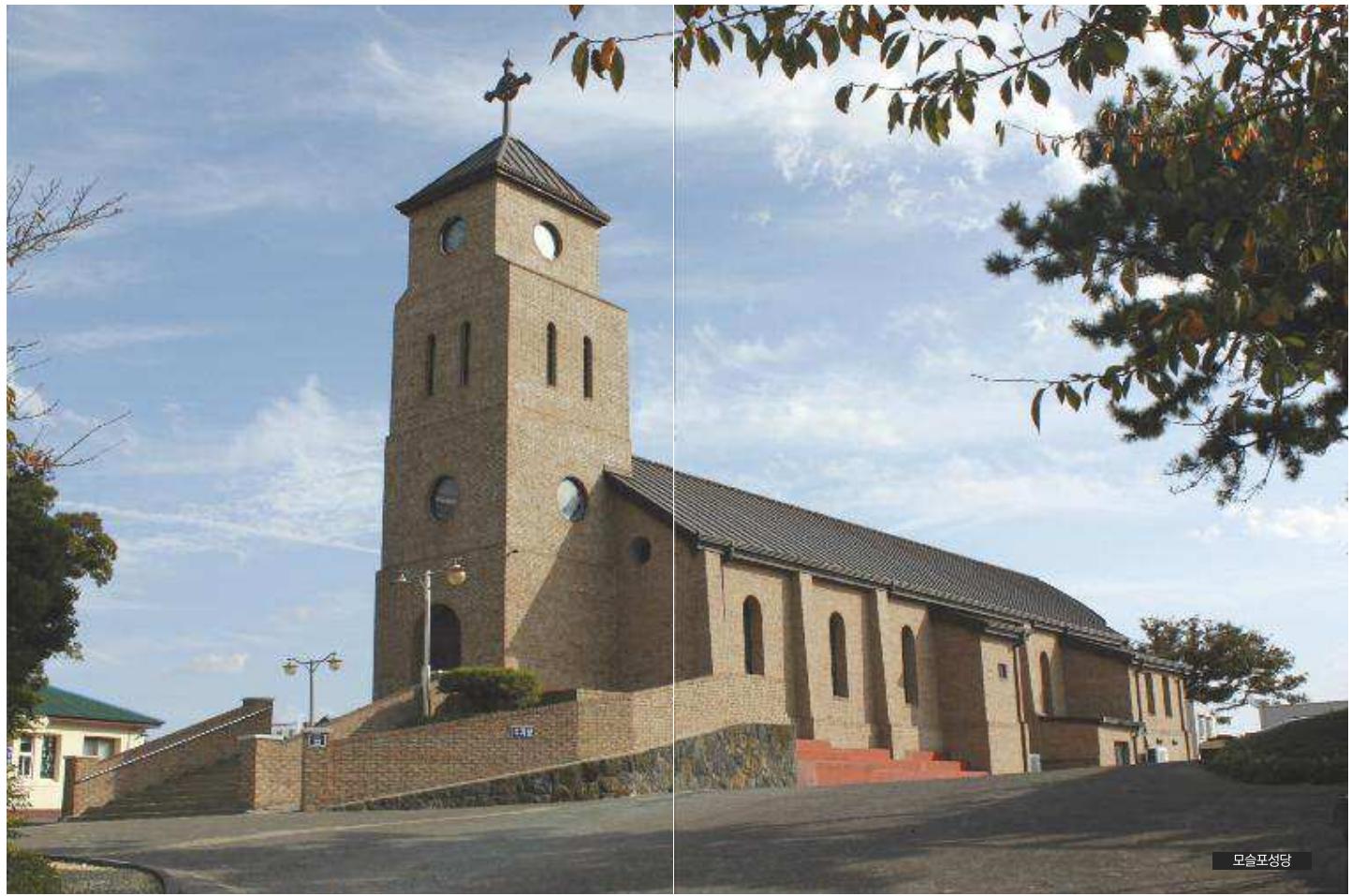
## ⑪ 이규석 삼부자 순교자 묘

신축교안(1901)때 신앙을 증거하다 참수형으로 순교한 이규석(본명 미상)은 1845년 제주도 대정현에서 태어났다. 큰 부자였던 그는 물려받은 재산을 자선사업을 위해서 희사했다. 그의 집안이 언제부터 천주교를 믿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는 1899년 파리외방전교회 폐네 배신부와 김원영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제주도에서 전교할 때부터 선자들의 지도자로 활약하며, 당시 대정현의 천주교회당으로 중문 세달리(서귀포시 여재동)에 공소를 차리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1901년 신축교인이 일어나자 당시 면 친척이며 대정현의 관노인 민관의 장두 이재수의 배교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순교의 길로 기꺼이 나아갔다. 그의 아들들(큰 아들이기문, 셋째 아들 이기만, 넷째아들 이기생) 역시 참수형을 당하였으나, 그 중 큰 아들 이기만은 크게 다친 와중에 살아났다. 그가 처형된 장소는 모슬포읍내 북쪽에 있는 노른 고지

동산이었으나, 현재 모슬포읍에서 동남쪽 7백 미터 지점에 있는 동글동산 옆의 밭에 묻혀있다. 60년이 지난 1961년, 후손들이 그의 순교를 기려 무덤 앞에 순교비를 세움으로써 제주 가톨릭교회의 표상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 마마락 선생 고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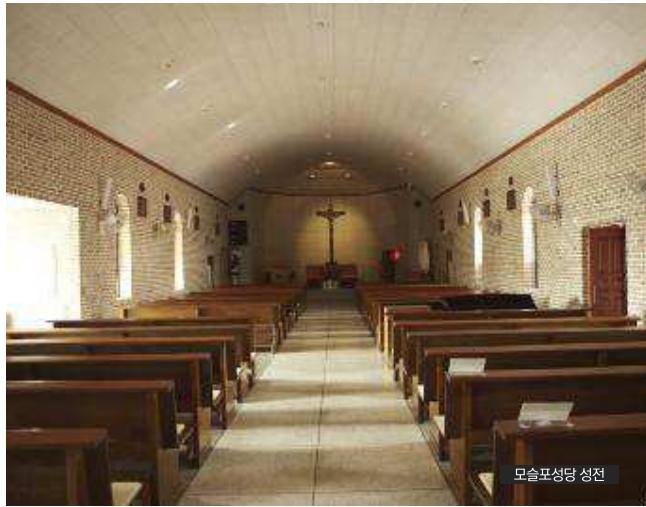
모슬포성당

## ⑫ 군사적 사연이 담긴 성당 모슬포성당

1952년 훈련소 내에 우리나라 최초의 군인 교회인 강병대 천주교회가 준공, 군인과 인근 주민, 피난민 등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다. 그러나 모슬포 지역의 기지총화로 교우 수가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물이 필요하게 되자, 1952년 말 현 본당 소재지의 부지를 매입, 이듬해 완공하였다. 신축과정에서 중공군 포로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뜻에서 건축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여 '통희의 집'으로 불렸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 22

☎ [064]794-2074



모슬포성당 성전



1899년 당시 모슬포본당

## 옛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은 1954년에 지어진 대정 지역 최초의 성당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대정 지역에는 육군 제1훈련소가 들어섰고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다. 포로 수용소의 설리번(Sullivan, 蘇) 군종신부는 이곳 성당 부지를 매입하고 중공군 포로들을 시켜 성당 석조 외벽 공사를 마치고, 1953년 포로교환과 함께 떠났다. 제1훈련소 군종 김이환(스테파노) 신부에 이어 김덕제(치릴로) 신부께서 성당을 완공하여 1954년 3월 12일 광주교구장 서리 하롤드 헨리(H. Henry, 亨) 신부(후에 대주교 됨)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가졌으며, 서귀포본당 소속 모슬포 공소가 되었다. 건물 명칭은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이 북한군을 지원하여 한국에 많은 피해를 입힌 죄과를 뉘우치면서 자은 집이라고 해서 '통희의 집'이라 하였다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자는 제16대 주임 고병수(요한) 신부의 뜻에 따라 '사랑의 집'으로 불렸다.



## 화해의 길

# 신축화해길

G O O N A P I L G R I M A G E

'신축화해 길'은 제주 근현대사의 아픔인 4·3과 신축교안의 역사적인 상처를 담고 있다.  
신축교안의 희생자들이 합장된 황사평(p.72)을 시작으로, 제주에 유배된 정난주 마리아가 도착한  
화북포구(p.77), 4·3으로 사라진 곤을동 마을과 희생자들이 버려진 별도천(p.78), 천주교인들이 희생된  
관덕정(p.81)을 거쳐 제주지역 최초의 본당인 중앙 주교좌성당(p.81)에서 마치는 총 12.6km의 순례길이다.

특히, 이 길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괴적하고 화려한 도시의 이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공정밀집 지역과 재활용품 집하장 등을 거치면서 고통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의 현재가 존재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여과 없이 보여지는 도시의 속내가 잠시나마 우리를 성찰의 길로 이끈다.



• 화북성당 미사시간 제주시 청봉남8길 14 ☎(064)756-6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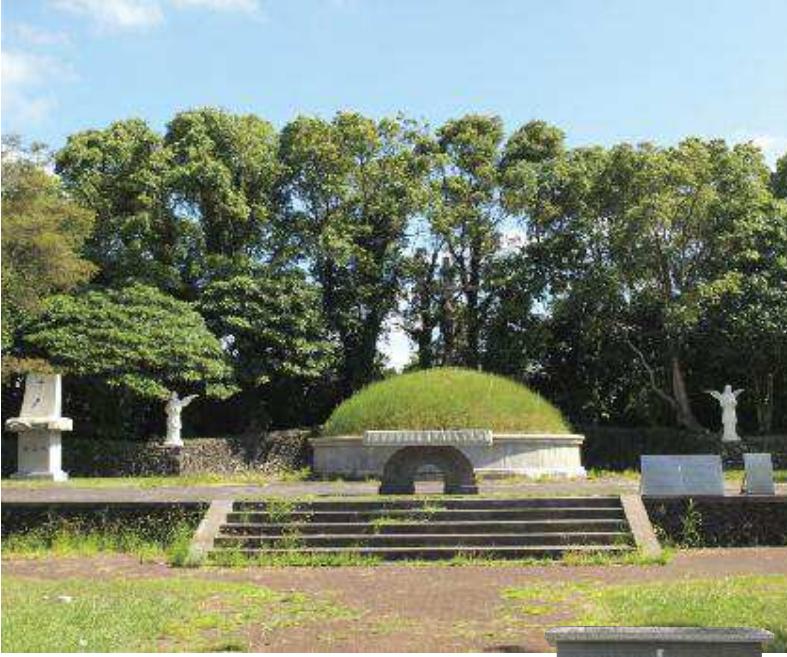
월요일 06:30 / 화요일 19:30 / 수요일 10:00, 19:30 / 목요일 10:00  
금요일 19:30 / 토요일 19:30 / 주일 06:00, 11:00, 16:00, 19:30

• 중앙 주교좌성당 미사시간 제주시 관덕로8길 14 ☎(064)753-2271

월요일 06:30, 10:00 / 화요일 06:30, 19:30 / 수요일 16:30, 10:00, 19:30  
목요일 06:30, 10:00 / 금요일 06:30, 19:30 / 토요일 06:30, 19:30  
주일 06:30, 09:00(어린이), 11:00, 16:00, 19:00(청년), 22:00

※ 미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축교안 때 희생된 천주교 신자들을 모신 황사평성지

1901년 신축교안으로 인해 관덕정에서 처형된 뒤, 별도전에 버려졌던 천주교 신자들의 유해가 안장(1904)된 곳.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1984)을 맞아 제주교구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황사평 묘역 성역화가 추진되어 무명 순교자들의 묘역이 정비되는 등 본격적인 묘역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1993년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황사평 묘역의 성역화를 재차 추진하여, 제주 교인의 희생자 김(토마스)과 라크루 신부의 복사 신재순(아우구스티노)의 묘를 순교자 묘역

으로 이장하고, 이어서 초기 제주 지목구장으로 활동한



헨리(Henry, 1909~1976) 대주교를 비롯한 성 폴론반회와 파리외방전교회소속의 선교사, 제주출신의 저명한 성서학자 임승필(요셉) (p.145) 신부 등 성직자와 일반 신자들의 묘지도 들어서게 되어 성지로서의 면모가 한층 정비되었다. 제주교구에서는 매년 11월 2일 '위령성월'을 맞아 전 교구 신자가 모여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리고 있다.

제주시 화북2동 5665-1 ☎ [064]721-0146



성직자 묘역



납골 묘역



## ② 공장 밀집지역 화북공업단지

1980년대 들어와 제주 지역은 관광 산업의 호황에 따라 관광 토크수 품질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업 육성과 환경 보호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산재해 있던 제조업체를 한곳에 모아 화북공업단지를 조성(1987) 하였다.



## ③ 화북성당

1997년 9월 11일 동문본당을 모본당으로 하여 분리 설립되었다. 같은 해 12월 현재의 부지에 천막성당 완공. 2002년 새 성전이 신축되었다.

제주시 청풍남 8길 14 ☎ (064)756-6004





#### ④ 조선시대 제주 제1의 관문 화북포구

화북포구는 조선시대 제주 제1의 관문이자 그 시대 풍자소설 배비장전의 무대이기도 하다. 주변에 화북진 성당, 김정 목사 기적비, 해신사 등이 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제주에 유배된 정난주 마리아가 두 살때가 젖먹이 아들(황경한)을 추자도에 떠어놓고(p.115) 도착한 곳으로, 천주교인으로서 제주도에 첫 발을 디딘 역사적인 곳이며, 자식을 그리는 어미의 애타는 심정을 해아려 볼 수 있다.



## ⑤ 제주 4·3 당시 초토화되어 터만 남아 있는 마을 곤을동

'항상 물이 고여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해안마을, 반농반어로 생계를 꾸리던 주민들은 1949년 1월 4일 불시에 들이닥친 토별대에 의해 가옥이 전소되고 많은 주민들이 화생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입구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에서 세운 '잃어버린 마을' 표석이 세워져 있다.



## ⑥ 제주시 동부지역의 대표 하천 별도천

한라산 백록담에서 발원하여 회복동을 지나 바다로 흘러드는 제주시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이다. 신축교안 당시 관덕정에서 희생된 천주교인들이 황사평(p.72)에 묻히기 점에 이곳에 방치되었다.



## ⑦ 제주시 최고의 산책로인 장수산책로가 둘레를 감싸고 있는 곳 별도봉

영주십경 중 사봉낙조로 유명한 사라봉 동쪽에 위치한 해발 136m의 오름으로 해안산책로가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다. 제주국제학, 망루전경, 유난히 아름다운 해안과 드넓은 바다 등이 펼쳐져 있고 맑은 날에는 추자도가 제법 가까이 보여 그곳에 어린 아들 황경한을 두고 온 정난주 마리아의 유배길 여정(p.115)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 ⑧ 모충사와 김만덕기념관

1977년 제주도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사당이다. 조선 후기 흥ون으로 도tan에 빠진 제주도민을 구휼한 의인 김만덕과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열사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모충사'라고 이름하였다. 김만덕의 옛 무덤 옆에 있던 묵은 비석, 동자석, 망주석, 상석 등의 석물, 추사 김정희가 유배 왔다가 김만덕의 이야기를 듣고 써주었다는 '은광연세'라는

글씨를 새긴 석각, 김만덕기념관 등을 만날 수 있다.



## ⑨ 2001 제주시 타임캡슐

20세기의 모든 문화역사 자료를 타임캡슐에 수장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21세기 출발점인 2001년 1월 1일 모총사 경내에 매설하였으며, 1천 년 후인 3001년 1월 1일 개봉하게 된다.





## ⑩ 제주 사람들의 젖줄 산지천

하류 구간에서 용천수가 풍부하게 솟아나는 하천으로 제주시에 상수도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이전인 1960년대 초까지도 많은 제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었다. 1996년대에 복개된 건물들을 모조리 철거하고 수년간의 복원 공사 끝에 지금의 생태 하천으로 거듭났다.



## ⑪ 제주 상권의 원조 칠성로

제주 상권의 원조로 제주의 명동이라 불리던 곳. 예부터 '칠성단(七星壇)'이 있다 하여 칠성골로 불렸다.



## ⑫ 제주 지방 통치의 중심 관덕정과 제주목 관아

제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제주 지방 통치의 중심지로서 지금의 관덕정을 포함하는 관아 시설이다. 동현과 내야의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제주목 관아지로 밝혀진 중요한 유적이다. 관덕정은 본래 조선 초 세종 때 목사 신숙청이 군사들의 연무장에 세운 정자(亭子)였고 관덕정 편액(扁額)은 안평 대군의 필치이다. 신축교암(1901) 당시 이곳에서 수많은 교우들이 목숨을 잃었다.

복동형으로 바꾸었다.

\* 신성학원: 제주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제주본당(현 중앙 주교좌성당) 2대 주임 라쿠르 신부가 설립



## ⑬ 제주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본당 중앙 주교좌성당

1899년 4월 22일 설립. 초대 신부는 폐네 배신부이다. 조선 대목구장 뷔텔(G. Mutel) 주교가 부임(1898)하여 제주도 본당 설립이 추진되었고 이듬해 제주본당이 설립되었다.

2000년 7월 2일 '천주교 제주선교 100년 및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 성당으로 재건축

되었다. 과거 제주시민들의 빨길이 가장 갖았던 곳 중의 하나로, 옛 신성 여자중·고등학교가 자리했었다.

제주시 관덕로8길 14

☎ (064)753-2271



## ⑭ 옛 신성여학교 터 향사당

조선 후기 정자로 봄과 가을에 고을 사람들 이 모여 향사읍례, 즉 활쏘기와 함께 잔치를 베풀던 곳이다. 1909년 신성학원의 교지로 이용되다가 1916년 폐쇄되고, 일본인의 사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981년에 다시 고쳐 지을 때 길가와 인접하여 남향이던 건물을





중앙 주교좌성당 성전



한주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1899-1999  
제작자: 100주년 기념사업회

### 자비의 문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2015년 자비의 해년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각 지역의 주교좌성당에  
자비의 문을 1년간 개방하여  
모든 이들을 자비와 용서로 받  
아들이도록 권장하셨다.  
자비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며, 구원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문이었던 자비의 문을  
기억하며 문 옆자리에 모셔두었던 자비의  
십자가(우측 사진).





• **금악성당 미사시간** 제주시 한림읍 금악복로 320 ☎[064]796-4188  
월요일 07:00 / 화요일 12:00 / 수요일 12:00 / 목요일 12:00  
금요일 07:00 / 토요일 07:00 / 주일 11:00

• **고산성당 청수공소 미사시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21 ☎[064]773-1423  
수요일 20:00 / 주일 20:00

• **신창성당 조수공소 미사시간** 제주시 한경면 조수2길 10 ☎[064]773-2217  
화요일 20:00 / 주일 20:00

• **고산성당 미사시간**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1 ☎[064]773-2004  
월요일 06:30 / 화요일 19:30 / 수요일 10:00, 19:30 / 목요일 10:00  
금요일 19:30 / 토요일 19:30 / 주일 06:00, 11:00, 16:00, 19:30

※ 미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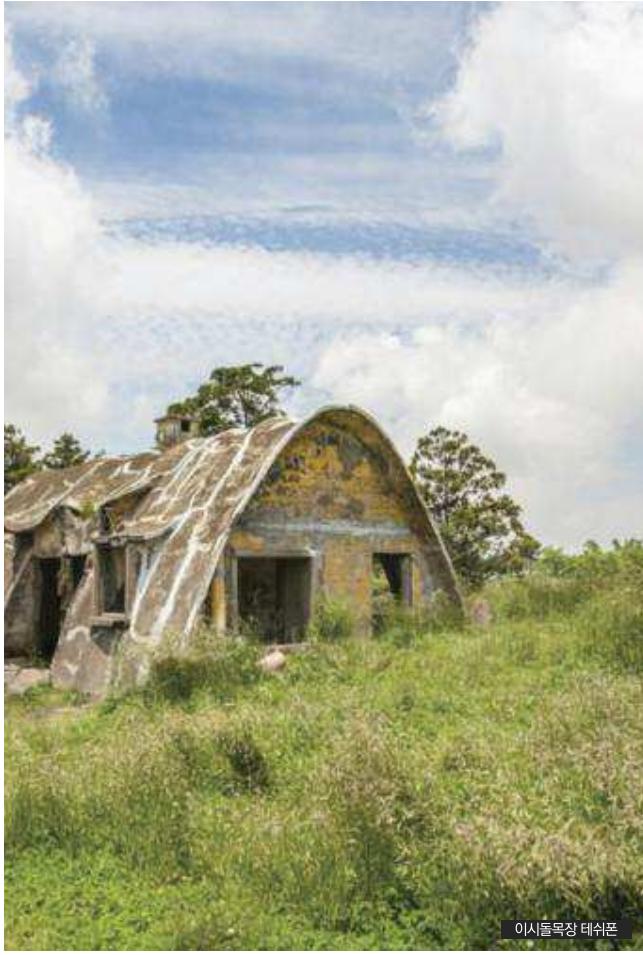
# 이시돌길

G O O N A P I L G R I M A G E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걷는 길

새미소(목주기도의 호수)와 성모동굴이 있으며, 새미 은총의 동산, 예수님 생애공원과  
아외 십자가의 길, 십자가 형태로 건립된 삼위일체 대성당 등이 있다.

제주 중산간의 호젓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조수공소와 청수공소를 거쳐 김대건길의 시작인  
고산성당에 이르는 3개 코스로 구성된 총 33.2km의 순례길이다.



이시돌목장 테쉬폰

\* 테쉬폰: 비람 때문에 초가집이 견디기 힘든 중산간에 맥그린치 신부가 이라크 고대도시 주택을 모방하여 지은 개척농가



아외 십자가의 길 中 제1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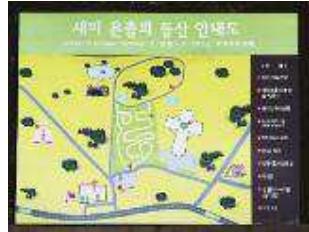


## 이시돌성지

이시돌길 시작에 앞서 새미 은총의 동산(예수님 생애공원, 삼위일체 대성당, 십자가의 길, 새미소, 성모동굴) 등을 개별적으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 주님의 은총과 순례객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어진다는 의미의  
**새미 은총의 동산**

거룩함, 영호, 복음, 중개자, 주님의 모습 등  
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새미 은총의 동산은 예  
수님 생애공원으로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최후의 만찬까지 공생활 중 중요 사건이 실  
물크기의 조각품으로 제작된 복음테마공원  
이다.



〈예수님의 탄생〉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번째 호적 등록은 쿠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등록을 하려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래야 지방 너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  
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려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뉴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루가 2,1-7)





### ◆ 십자가 형태의 야외성당 삼위일체 대성당

맥그린치(P.J.McGlinch, 임 페제) 신부(p.102)가 건립하여 2001년 10월에 봉헌되었다. 실내성전은 삼천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제단을 중심으로 십자가 형상으로 된 성전 위(야외성전)는 오천 명이 함께 미사를 올릴 수 있다.  
제주시 한림읍 새미소길 15



야외성당



야외미사



### ◆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수난기와 십자가의 길(14계)이 실물 크기로 제작된 기도와 묵상의 길이다.





새미소(목주기도의 호수)

### ❖ 새미소(목주기도의 호수)

400미터가 넘는 넓은 호숫가에 돌과 나무를 목주 모양으로 빙 둘러 심어 조성한 호수. 제주교구는 1992년부터 매년 5월(성모성월) '성모의 밤'과 10월(목주기도성월) '목주기도의 밤'을 개최, 교구 전 신자가 모여 삼위일체 애의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한 후 촛불을 들고 호수를 돌며 목주기도를 바친다.



성모의 밤



목주기도의 밤



새미소(목주기도의 호수)

성모동굴 루르드의 성모 발현을 재현하여 조성되었으며 애와미사를 할 수 있다.



제주에서 개최된 한국청년대회(KYD)  
(Korea Youth Day, 2007년 8월 18일 ~ 21일)

한국 가톨릭 청년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젊은이들의 신앙축제 '제1회 한국 가톨릭 청년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370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젊은이의 꿈과 열정을 불태우며 일치된 신앙을 고백하였다. 특히 8월 20일, 종일 내리던 폭우가 대회 절정인 미사 직전 그치면서 이시돌 하늘에십자가 모양의 구름이 생기며 기쁜 축제미사가 봉헌되었다.



성 이시돌센터 전시관

▶▶▶▶▶ 이시돌길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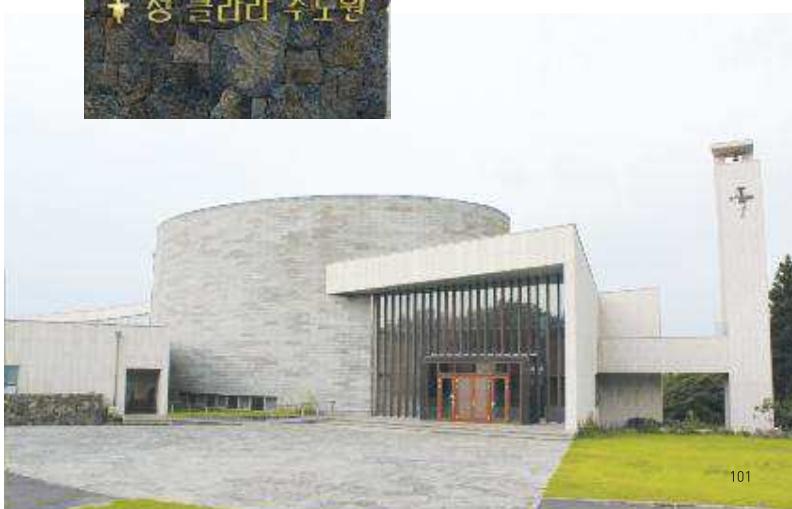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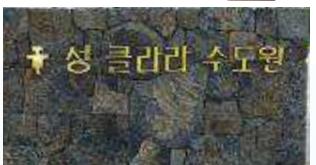
**① 성 이시돌센터 전시관**

1954년 제주를 찾아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맥그린치 신부(p.102)의 발자취와 반세기를 훌쩍 넘은 성 이시돌 공동체의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2009년 5월에 개관하였다.



**② 영적봉사자  
성 클라라 수녀원 & 금악성당**

클라라 수녀원은 오로지 침묵과 기도와 노동 속에서 하느님을 명상하는 곳으로 관상봉쇄 수도원이다. 금악성당은 수도원과 함께 있으며, 금악공소로 시작. 성 이시돌 묘장 부근에 글라라관상수녀회가 건립(1974)되고 수녀회 성당이 완공(1981)되면서 초대 신부님으로 맥그린치 신부님을 모시게 되었다. 금악성당은 본당 소유의 성당 건물이나 부속 건물이 없고 글라라관상 수녀회의 부속 성당을 사용하고 있다. 2014년 10월 현재의 새 성전과 수도원 축복식을 하였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북로 320 (064)796-4188)





금악성당 성전

### 제주를 사랑한 파란 눈의 사제 임피제,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신부

(Patrick James McGlinchey, 1928~2018)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사제로 1954년 4월 제주도 한림공소(p.142)에 부임, 한국전쟁과 4·3 사건 등으로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던 피폐한 땅 제주를 위해 정착을 결심하였다. 어린 시절 수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축진료를 다녔던 경험을 토대로 제주의 양돈·목축업 산업에 씨앗을 뿌리고, 제주 최초의 지역신용협동조합 설립, 4H 결성, 병원·요양원 설립 등 제주도민의 자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제주의 경제·복지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 공로로 5.16 민족상, 막사이사이상,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 내무부 장관상, 적십자봉사상, 아일랜드 대통령 특별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맥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기간 중 직접 '이시돌'을 방문하여 신부님과 환담하고 시설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1973년 '임피제(성 맥그린치와 이름인 패트릭 제임스의 머리글자, M-P-J)'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증을 받았으며, 선종하신 이듬해(2019) 법무부로부터 제주도민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64년간 혼신하신 삶을 기려 명예국민증을 현정받았다.



〈맥그린치로〉는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명예도로명으로 한림읍 금악리 일대 금악북로 3.8km 구간이다.

### ③ 붉은오름 밝은오름

붉은오름, 명악(明岳), 적악(赤岳) 등 여러 별칭이 있다. 모두 이 오름을 구성하는 흙이 붉은 색을 띠는 데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한림읍에만 같은 명칭의 오름이 3개나 있다. 높이 379.9m, 둘레 556m, 총면적 1만 5698m<sup>2</sup> 규모의 자그마한 기생 화산으로 반달 모양의 낮은 능선으로 이루어졌다. 북쪽으로 입구가 넓게 벌어진 말굽형 분화구가 있다. 전제가 잔디로 덮여 있으며 군데군데 억새가 군락을 이룬다.



### ④ 말굽형 분화구 모양 정물오름



오름의 기슭에 정물이라고 부르는 샘물이 있으며 이 이름에서 유래하여 정물오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름의 남서쪽 경사면은 가파르고 북서쪽의 경사면은 완만하다. 오름에는 억새들이 무성하게 자란다. 오래전부터 명당으로 이름이 높아 묘지가 많다.

### 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제주 엠마오 연수원

사제 수의 증가와 사목자변의 다원화에 따른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사제 재교육 방안을 위하여 설립한 사제 평생교육기관. 2014년 10월 27일 축복식과 제막식을 가졌다.



### ⑥ 금오름(금악오름)



오름 정상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 이 많이 찾는 곳으로 오름 전체가 초지로 덮여 억새와 솔나물, 개망초, 영경퀴 등의

식물이 자라며, 남북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동시에 낮은 안부로 이어져 있다. 거문오름이라고도 부른다.



### ⑦ 금악리 웃동네 마을터

금악리 상동이라는 뜻에서 웃동네라고 불렸다. 38호 141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1948년 11월 21일경 소개령에 의해 마을이 전소되었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그 와중에 주민 8명이 희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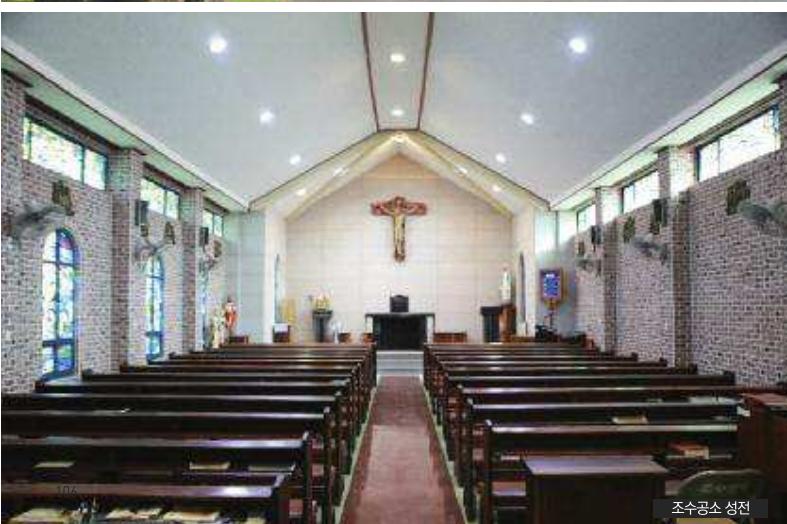


### ⑧ 대문없는 마을 상명리 / 월림리

한림읍 중간마을을 상명리는 원초적인 제주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망오름에서 바라보는 해안과 석양이 유명하고, 3MW 7기의 풍력발전이 40만 평의 상명목장에 우뚝 서 있다.



조수공소 성전



조수공소 성전



조수공소 성모상

### ⑨ 신창성당 조수공소

한경면 조수리에 위치한 신창 성당 관할의 공소. 1957년 11 월 3일 신창본당 소속으로 설립되었고, 2001년 1월 11일 새 성전이 봉헌되었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박동과 교육관을 갖추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2길 106 ☎ 064)773-2217

### ⑩ 고산성당 청수공소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한 고산성당 관할의 아름다운 공소. 1956년에 설립되었고, 현재의 경당은 2000년에 신축. 북제주군 건축상(特選)을 수상하였다.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21 ☎ 064)773-1423



청수공소 돌십자가





⑪ 설문대할망(할머니)도 쉬어가는 마을  
낙천의자공원

천 개의 의자와 이야기가 있고, 천례의 청정 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낙천리에 위치한 테마공원이다. 하늘이 내려주었다는 낙천리는 밤에는 풀벌레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장수풍뎅이가 찾아드는 곳이며 100m 지하암반수로 키워낸 건강한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전통 농촌문화 공간이다.

⑫ 이시돌길의 마침이자 김대건길의 시작  
고산성당 (p.19)

한국 전쟁 후 고산군 지역에 형성된 신양 공동체는 1955년 4월에 한림분당 소속 '고산 공소'로 설정되었다가 1957년 4월에 신창 분당이 부활되면서 신창분당 관할로 이관되었으며, 23년이 지난 1990년 2월 22일에 '고산분당'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청수공소를 관할하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1 ☎ [064]773-2004



# 순례길 거점 외 본당



순례길 거점 외 본당

- 제주시 서부지구  
중앙주교좌성당 / 81
- 판덕정 / 81
- 서문성당 / 112
- 주자공소/황경한의묘 / 114
- 신제주성당 / 116
- 연동성당 / 119
- 노형성당 / 122
- 정남주성당 / 124
- 하구성당 / 126

제주시 동부지구

- 동문성당 / 128
- 광양성당 / 130
- 김기랑성당 / 132
- 동광성당 / 134
- 화북성당 / 75
- 횡사평성지 / 72
- 조천성당 / 48
- 부자 김기광 펠리스 베드로 순교현장비 / 56
- 김녕성당 / 136
- 세한고수 / 138

서부지구

애월성당 / 140  
한림성당 / 142  
금악성당/글리수리녀원 / 101  
시사돌성지 / 90  
신창성당 / 29  
조수공소 / 107  
웅수성지 / 20  
고산성당 / 18  
청수공소 / 107  
모슬포성당 / 66  
무릉공소 / 146  
정난주마리아묘(대정성지) / 60  
미란도경성지 / 147  
화수성당 / 148

날부자로

한국사	11
종문성당	150
서귀포성당	34
하논성지	37
강정공소	152
가나안공소	154
서귀복자성당	42
면형의 집	40
효둔성당	155
남원성당	158
표선성당	160
성산포성당	162
우도공소	166

## ● 서문성당

초대 교구장 현 하롤드 대주교 추모 기념성당.  
제주에서 열 번째 설립된 본당으로 7명의  
사제(교구사제 6명, 프란치스코 소속 1명)를 배출  
하였다(2010년 현재).  
1977년 6월 30일 주교좌 중앙 본당에서 분  
리 설립되어, 1981년 11월 1일에 자본당인

신제주 본당을 분리하였다. 이어 1988년 2월  
10일에 중앙본당으로부터 추자공소를 이관  
받으면서 현재의 관할 구역을 갖게 되었다.  
옛 제주지목구청과 주교관이 있었던 자리에  
터를 잡아 1994년 2월 현재의 성전을 신축,  
1994년 3월 19일에 봉헌식을 가졌다.  
제주시 남성로 11길 25 ☎ [064]753-2979



서문성당



서문성당 성전



초대 제주지목구장 현 하롤드 대주교  
Harold W Henry

(성골를반 외방선교회 / 1971. 7. 14 - 1976. 3. 1 재임)

1909년 7월 11일 미국 미네소타주 출생.  
1934년 한국에 입국, 광주교구장 서리 시절인  
1953년 한국에 처음으로 레지오 마리애를  
도입해 한국 레지오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광주대교구장 봉직 중 제주가 광주대교구  
에서 분리되자 초대 제주지목구장으로 부임.  
1976년 3월 1일 주교관에서 미사 집전 후  
심장마비로 선종하였다. 현재 황사평성지  
성직자 묘역(p.73)에 계시며, 2016년 11월  
27일 그를 기리는 흥상 제막식이 있었다.

## ● 추자공소

1908년 5월부터 선교사가 들어와 전교한 기록이 있으며, 1956년부터 중앙성당 관할의 공소가 시작되었다. 1956년 봄 영흥리 유법수의 집에서 공소에 절을 시작하여, 1956년 8월 '추자공소'로 설정되었다. 1957년 4월 27일 구 가를로 신부(중앙본당) 집전으로 첫 미사를 봉헌, 9명이 첫 세례식을 하였다.

신유박해 때 제주에 유배오게 된 정난주마리아가 추자도 갯바위에 아들 황경한을 놓고 왔다는 역사적인 사건(p.115)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십자가의 씨앗을 뿌린 곳이

'추자도'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공소 신축의 필요성을 느껴 1974년 6월 9일 '추자공소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 1975년 4월 5일 구 공소 건물을 신축 봉헌하고, 2015년 10월 '눈물의 십자가'를 설치하였다.

1988년 2월 10일 중앙본당 관할에서 서문 본당으로 편입, 2003년 6월 30일 현 성전 봉헌식을 하였다. 신자들은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생선과 젓갈, 쑥 등 돈이 되는 것들을 제주도와 육지에 내다 팔아 신축봉헌금을 마련하였다.

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34 ☎ (064)742-3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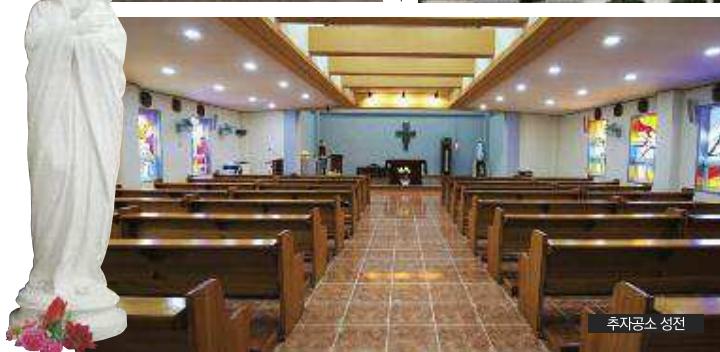
추자공소



추자공소 성전



47년간 못자리였던 구 추자공소(1956년 ~ 2003년)



추자공소 성전

## 황경한의 묘



1801년은 추자도의 신앙이 짜을 틴운 시기이다. 신앙의 거름을 준 이들은 황사영(알렉시오)과 정난주(마리아) 부부. 백서 사건으로 유명한 황사영은 1790년 다산 정약용의 만행 정약현의 딸인 정난주를 아내로 맞아 황경한을 낳았으나, 신유박해(1801)로 인해 황사영은 순교하고, 역적죄인의 경우 모자를 함께 두면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부인 정난주는 대정현에 판비로, 아들 경한은 추자도로 유배를 오게 되었다. 정난주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백사공과 나졸을 매수(추방), 추자도의 갯바위 속 칙령 황새바위에 남겨 놓았다.

황경한의 삶은 자세히 알려진 게 없으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어부 오씨에 의해 키워졌으며, 그가 입고 있던 저고리 동정에서 나온 이름과 생년월일에 의해 황경한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장성한 경한은 혼인하여 두 아들 건섭(建燮)과 태섭(泰燮)을 낳았는데, 그 후손이 아직도 추자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경한은 자신의 어머니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배가 들어오면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봤다고도 전해지며, 정난주의 사후에 부고가 전해졌다고도 한다.

황경한이 살던 오씨 집은 1965년 불타 없어졌고, 그때 그 집안에서 간직해온 경한의 젖먹이 때 옷이나 가첩 등도 모두 소실되었다. 제주교구는 1999년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허추자도에 있는 황경한의 묘소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성역화를 추진하였으며, 추자도로 유배된 지 210년이 지난 2011년 10월 '황경한 묘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1997년 11월에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황경한의 묘를 찾아 참배하였다.



정난주마리아의 눈물이 십자가에 맺혀 하늘로 오르는 모습 표현



신제주성당

### ● 신제주성당

1977년 11월 15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원에 신시가지(속칭 신제주) 조성계획에 따라 신제주 지역의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한 성전 건립을 감안, 1980년 1월 서문성당 원요한 신부가 이 지역의 신자 가정을 순회하며 미사 봉헌을 시작, 1980년 7월 30일에 서문본당 소속 신제주 공소로 출발하였다. 1981년 11월 1일 '신제주본당'으로 승격, 1984년 2월 1일에 광양 본당으로부터 '하귀공소'를 이관받아 관할하게 되었으나, 1997년 9월 11일에 '노형본당'을 분리한 데 이어 1998년 1월 25일에 하귀공소가 본당으로 승격, 2001년 8월 '연동본당'을 분리하여 현재의 관할 구역을 갖게 되었다.

1984년 5월 6일에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한 미사 중에 이뤄진 103위 시성식

을 통해 성인 품에 오른 聖 김성우(안토니오)의 유해가 제대 밑에 모셔져 있고, 2016년 9월 18일 성전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선종하신 故 김성현(루시아) 자매님의 기억판이 '십자가의 길 제 123' 아래 모셔져 있다.  
제주시 신대로8길 42  
☎ (064)742-4678



신제주성당 성전



### ● 연동성당

2001년 8월 2일 연동, 노형지구의 '연동 신시가지' 개발로 신제주성당과 노형성당에서 321세대 962명의 신자로 분리 설립되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미사를 봉헌하다가,

한 신자로부터 봉헌 받은 현재의 부지에 천마 성당을 지어 이사(2005)하였다. 현재의 성전은 2005년 착공식을 갖고, 2008년 준공, 2010년 봉헌식을 가졌다.

제주시 1100로 3157 ☎ (064)744-7811





연동성당 성전



열 두 사도 기둥



종탑과 성모님

## 천막성당의 추억

까만 차광막을 써우고 비닐하우스 2개동을 연결시킨 천막성당. 성당제대 옆에 커다란 소나무가 3그루(일명 삼위일체 소나무) 있었는데, 베어내지 않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 성당을 지었다.



주변 소나무발 출방울로 만든 스티로폼 제대 심자가



천막성당 제대



천막공사 중 나온 자연석을 이용한 제대



비가 오면  
벗물이 새어  
성전 바닥을  
홍건하게 적셨다.

일명 삼위일체 소나무중 한 그루



소나무발 허기운데 자리한 야외 제대 - 공사중 나온 자연석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 ● 노형성당

1995년 초에 수립된 신제주 본당 분리 계획에 따라 현 부지 위에서 성당 신축을 시작하였고, 새 성당 봉헌식과 동시에 1997년 9월 11일에 분리 설립되었으며, 1998년 1월 25일 하귀 본당 신설에 따라 일부 구역이 조정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제주시 광평동로 37

☎ (064)742-9122



노형성당 성전



노형성당

## ● 정난주성당

2009년 1월 30일 노형성당에서 외도구역  
과 광령구역, 하귀성당에서 외도구역을 이관

받아 분리 설립되었으며, 1월 31일 첫 미사  
를 봉헌하였다.  
제주시 우정로6길 23 ☎ (064)743-0893





하구성당

### ● 하구성당

이 지역에는 1889년 제주 본당이 설립된 직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몇 명의 신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1901년의 제주 신축교안과 4·3사건으로 인해 복음이 끊기게 되었다. 그러나가 1950년에 '애월공소'가 설립되고, 1959년 8월 28일 하구·과지 애월지역의 사목이 제주본당(현 중앙 주교좌본당)으로부터 한림본당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애월공소집'의 봉헌식이 있었다. 이어 1961년 말 '과지 공소', 1962년 '하구 공소'를 설정하였다. 1970년 11월에 광양본당이 설립되면서 소속이 되었다가, 1984년 2월 신제주본당 소속으로 변경, 1998년 1월 25일 하구본당으로 승격하여 같은 해 7월 18일 제주교구의 21번째 성전으로 봉헌되었다.

주보성인인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가족과

'일생', '제주 바당을 거니는 예수님', '물허벽을 진 성모님' 등 독특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들이 있다.

제주시 애월읍 하구로23길 21

☎ (064)713-9001



하구성당 성전



동문성당

### ● 동문성당

1967년 6월 15일 제주 중앙 본당에서 분리 설립되었으며, 당시에 복제주군의 김녕공소와 조천공소를 이관 받았다. 이후 1973년 8월 23일 김녕공소가 성산포본당으로 이관되었으며, 1995년 4월 30일 동광본당이 설립되면서 일부 관할 지역을 새 본당으로 이관하였다. 1997년 9월 11일 화북 본당 신설과 1999년 1월 7일 조천공소의 본당 승격으로 일부 지역을 이관함으로써 현재의 관할 구역을 갖게 되었다.

제주시 신선길 20 ☎ [064]757-8866



동문성당 성전





광양성당 성전

### ● 광양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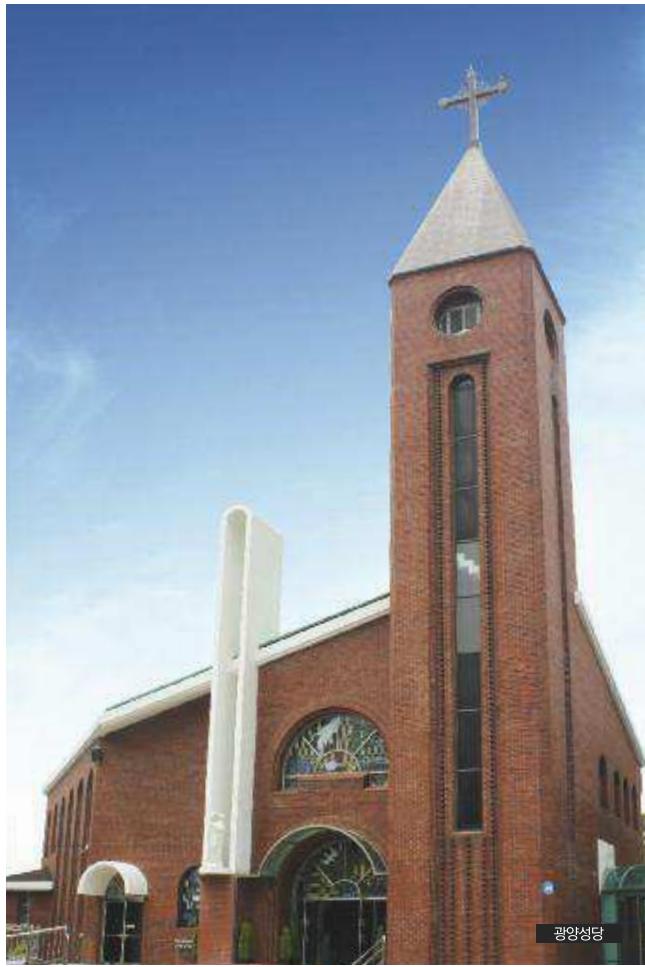
삼성혈의 남쪽에 위치한 제주교구의 일곱 번째 본당. 1970년 11월 9일 제주 중앙본당에서 분리 설립된 후, 1981년에 하귀공소를 신제주 본당으로 이관하고, 1988년에 성산 포본당으로부터 김녕공소를 이관 받았다. 1995년 4월 30일에 첫 번째 자본당

인 '동광본당'을 분할함으로

써 현재의 관할 구역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성당은 1988년 11월 27일 축복식을 가졌다.

제주시 동광로5길 19-18

☎ [064]753-4498



광양성당



김기량성당



김기량성당 성전

### ● 김기량성당

2012년 1월 11일 이도지구에 신설본당 설립을 위한 기공식으로 태동하여 2012년 2월 10일 본당 신설 승인을 받은 후 광양성당에서 9개구역(621세대 1.555명), 동광성당에서 1개구역(51세대 154명)으로 총 672세대 1,709 명의 신자로 신설되어, 2012년 2월 25일 임시 성당인 제주오렌지 건물 2층에서 본당 설립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현재의 새 성전의 1층만 완공하여 당해 9월 2일 첫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2019년 11월 성전 봉헌식을 가졌다.

제주시 구남동2길 55 ☎ [064]722-8866





동광성당 성전

### ● 동광성당

1995년 2월에 임도 지구 본당 설립준비가 시작되어 같은 해 4월 30일에 '동광본당'으로 설립되었다. 동문과 광양 등 모본당으로부터 관할 구역과 신자수를 각각 이관 받았고, 10월 3일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식을 가졌다.

제주시 태성로2길 10 ☎ [064]721-9911



동광성당



## ● 김녕성당

작고 아담한 성전에 비해 성당 마당에 들어 서면 높은 '김녕 예수성심 자비탑'이 자리하고 있다. 2008년 본당 주임이었던 이시우(안드레아) 신부가 성당 마당 한가운데 높은 텁이 세워져 있는 꿈을 꾸고, 며칠 뒤 다시 우뚝 솟은 탑을 보게 되는 체험을 하여, 신앙의 불모지인 이 지역을 위한 성령의 특별한 표징으로 생각

하여 기초공사를 시작, 이듬해(2009) 완공하였다. 이 지역은 무속신앙이 강한 곳으로, 서귀포 토산과 더불어 칠성(뱀신)의 본향이기도 하여 아직도 그러한 무속행 위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8길 5-2 ☎ [064]783-4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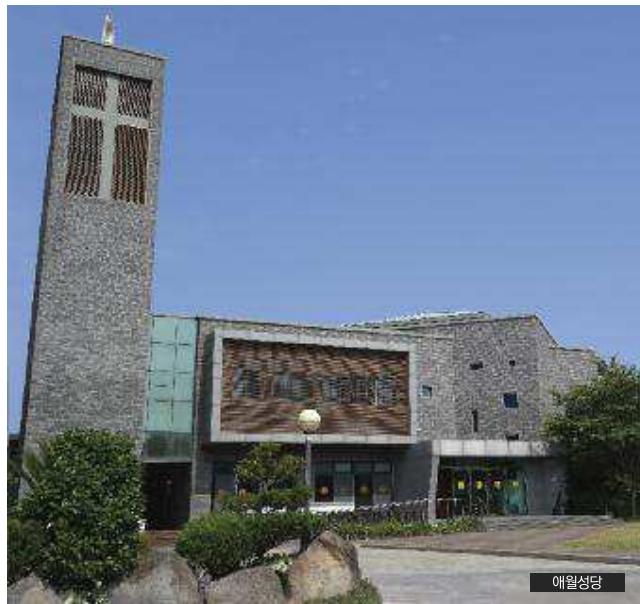


김녕 예수 성심 자비탑

## ● 세화공소

김녕성당 소속으로 1992년 11월 3일  
경당을 신축하여 봉헌식을 가졌다.  
제주시 구좌읍 세종로 9  
☎ [064]782-1773





### ● 애월성당

1959년에 한림본당 소속 애월공소로 출발, 2007년 지금의 부지로 옮겨 성당을 짓고 2010년 축복식, 2012년 2월 10일 53년 만에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현대적인 외형 건물과 함께, 실내 다양한 방향에서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한 자연의 빛과 성전의 조화가 매우 신비롭고 아름답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2008)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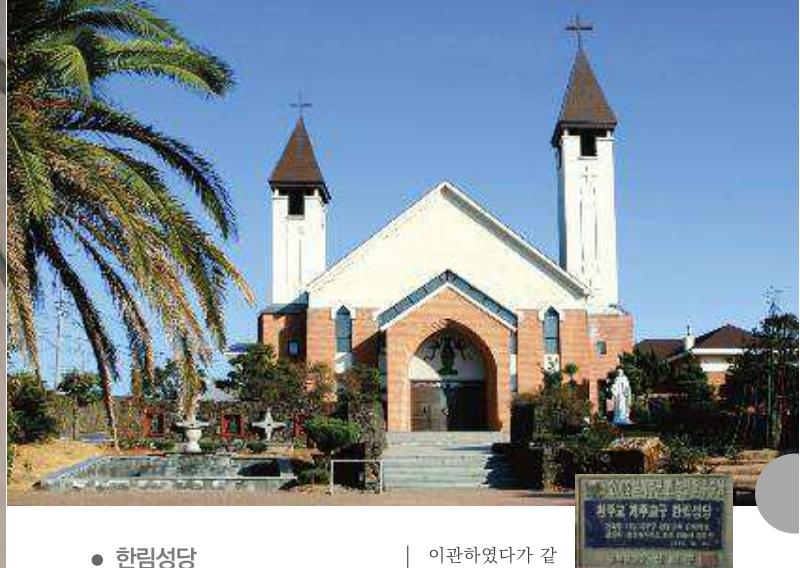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59

☎ [064]799-0026





한림성당 성전



### ● 한림성당

한림지역에는 1903년경에 '수원공소'가 설립되었다가 훗날 폐쇄되었으며, 1951년 4월 신창 준 본당 소속 '한림공소'가 다시 설립되었다. 1954년 4월 1일에 '한림본당'으로 승격되면서 이웃의 신창본당은 신창공소로 전락하였다가, 1957년 4월 다시 본당으로 부활되었다.

1953년 4월 부산을 통해 한국땅에 들어와, '한림본당'에 부임한 임피제 신부(p.102)가 제주와의 첫 인연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제주는 4·3과 한국전쟁의 여파로 매우 피폐한 상태였고, 도민들은 저마다 가난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며, 신자 수는 30명 정도에 본당 건물조차 없었다. 그는 전임 신부가 마련해 둔 100평의 땅에 가진 돈을 떨어 350평을 보태 돌성당을 지었다. 1970년 11월 하귀공소를 '광양본당'으로 이관하고, 1982년 6월에 '금야본당'을 분리한 데 이어 1998년 2월에 애월공소를 '하귀본당'으로

이관하였다가 같은 해 6월 본당 관

할 구역 재조정으로 현재의 관할 구역을 갖게 되었다. 예전 성당이 있는 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현재의 새 성전(2001년 7월 21일 축복식)이 지어졌으며, '북제주군 건축상 최우수상(2002)'을 수상하였다. 예전 돌 성당의 종탑이 보존되어 있고,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성서번역에 있어 가장 큰 업적(1989년부터 14년 동안 새 번역 성서의 번역작업)을 남긴 한림출신 임승필(요셉) 신부(p.145)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20 ☎ [064]796-4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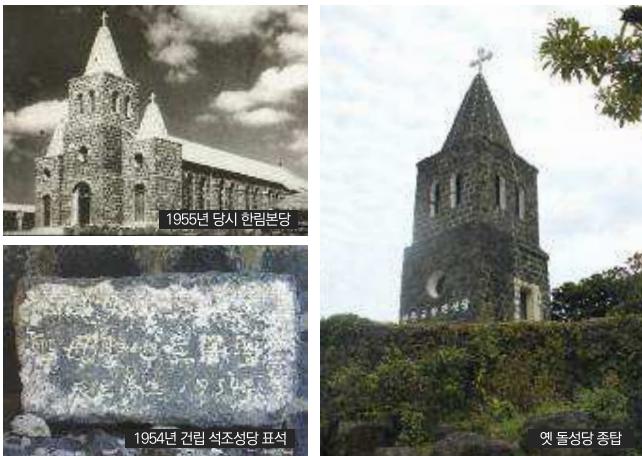
한림성당 성전



아외 십자가의 길



1955년 당시 한림본당



옛 돌성당 종탑



### 사제 임승필(요셉)

- 1950. 6. 19. 제주도 북군 한림읍 출생
- 1968. 광주 사례지오 고등학교 졸업
- 1975. 광주 가톨릭대학교 학부 졸업
- 1975. 10. ~1979. 5.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교 신학부
- 1979. 6. 2. 사제 수품(제주교구)
- 1979. 10. 교황청 성서대학(Biblicum) 성서학 박사
- ~1987. 12.
- 1988. 2. 제주교구 중앙본당 보좌신부
- ~1989. 2.
- 1989. 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성서위원회 총무
- ~2003.
- 2003. 3. 선종. 제주교구 황사평성지의 성직자묘역(p.73)에 안장

## ● 무릉공소

1954년 모슬포공소가 설립되면서 '무릉 신앙 공동체'가 형성, 1958년 모슬포분당 설립 직후 '무릉공소'로 설정되었다. 1990년 신설된 고상분당 소속이었다가 1996년 다시 모슬포분당 관할이 되었으나, 신자수의 저하로 특별한 경우에만 미사를 거행한다. 2018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경당부속건물을 예멘난민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서구포시 대정읍 무릉중앙로 21번길 25-9



1996년 당시 무릉공소



무릉공소



무릉공소 성전

## ● 마라도경당

국토 최남단 땅 끝에서 하늘을 시작하게 하는 '마라도 브르찌옹꼴라(작은집)'.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부산교구 대연동성당 신자들의 봉

헌으로 2000년 대회

년에 완공되었다.

그후 수도회에서 제주 교구에 헌정, 현재는

모슬포성당 소속이다.

서구포시 대정읍

마라도 153



전복껍데기 형상의 지붕



마라도경당

\* **브르지옹꼴라:** 이탈리아 아시시의 교외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안에 있는 성당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생활 하던 곳.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정신적 고향이다.



마라도경당 성전

성전 내부는 요나의 물고기 뱃 속 뼈, 고통을 상징하며, 성전 등은 문어 일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받으신 '오상'을 뜻하는 5개의 유리천정을 통해 빛이 들어온다.



화순성당



화순성당 성전

### ● 화순성당

1952년 화순리 한 신자(박남옥)의 집에 10여 명이 모여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며, 1961년 10월 22일 모습포성당 관할 공소로 설립되었다. 1989년 현재의 위치에 화순공소 경당을 완공하였다. 1990년 '성모유치원'을 개원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을 통한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월 20일에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12번길 1

☎ (064)794-0483



## ● 중문성당

현재의 중문 지역은 제주에서도 가장 일찍 복음이 전래된 곳이었다. 19세기 말에 양용 향(베드로)가 육지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고향인 대정군 색달리(현 색달동) 인근에 신앙을 전하면서 천주교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01년의 신축교안으로 인해 신앙 공동체는 와해되었고, 신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후 1902년에 하논본당이 홍로로 이전되고, 1937년 다시 서퀴리로 이전되면서, 중문 지역에도 복음이 다시 전파되기 시작하여, 1955년 중문의 신앙 공동체를 공소로 설정, 1956년 8월 15일 공소 경당을 마련하고 그 이름을 '하늘의 문 공소'로 명명되었다. 이 공소는 1970년 11월 9일 서귀 중앙 본당 관할로 변경되었다가, 1988년 2월 10일 중문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동시에 예래 공소 지역이 본당 관할로 편입되었다.

중문성당은 제주 4·3 당시 80대 노인에서 2살 난 아기까지 71명이 무참히 학살된 학살터 중 한 곳이었다.

2018년 10월 제주교구 '묵주기도의 밤' 행사에서 강우일(베드로) 주교는 중문성당을 '4·3기념성당'으로 선포, '4·3기념 십자가'를 축복하고 전달했다. 2019년 3월 '제주 4·3 십자가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서귀포시 천제연로 149 ☎ [064]738-6123



중문성당



중문성당 성전



4·3기념 십자가



## ● 강정공소(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생명평화 성장을 위한 전례 및 사목활동(강정 마을의 갈등 치유와 화해), 생명평화 실현을 위한 학술·교육·문화활동, 군사기지 확장 및 주변 환경오염 등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신축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서귀복자성당 관할이다. 2015년 9월 23일 첫 미사가 봉헌되었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지를 결정한지 만 10년이 되는 날인 2017년 4월 26일, 베트남 종전 42주년을 맞아 당시 한국군에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상(베트남 피에타)이 세워졌다.

서귀포시 말길로 213번길 15-1

☎ (064)739-2009



\*베트남 피에타 동상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희생자인 어머니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아기들의 낭을 위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옛 강정공소



2015년 9월 노둣돌 비석



강정 구름비 바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며 세계 지질공원이자 생물권 보존지역.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으로서 바위의 길이 1.2km, 너비 150m에 달하는 한 냉어리의 바위이다. 용천수가 솟아나 국내

에서 유일한 바위 습지지대로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무척 높은 곳으로, 2004년 구름비와 일대 해안이 절대보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2년 3월 7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하여 밀파되었다.

## ● 가나안 공소

서귀포 본당을 중심으로 설립된 공소들 중의 하나로서, 1954년 호근 공소와 모슬포 공소, 1955년 성산포 공소와 중문 공소, 1956년 가나안 공소, 같은 해 8월에 남원공소와 예래 공소, 1957년 효돈 공소, 1964년 표선 공소가 설립되었으나 현재 본당으로

승격(모슬포, 성산포, 중문, 표선)되거나 없어졌다.  
제주 천주교회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소이며, 서귀포 본당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소이다. 지금은 공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름과 건물만 존재한다.  
서귀포시 배낭골로 4 ☎ [064]732-2786



효돈성당

## ● 효돈성당

감귤과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진 지금의 효돈본당 관할 구역에는 이미 19세기 말에 복음이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01년의 신축교인 이후 신자들이 흩어졌다가, 6·25전쟁이 끝난 뒤부터 다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서귀포 본당의 주일미사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신자 수가 증가하게 되자 서귀포 본당의 13대 주임 브레이디(R. Brady) 신부가 1957년 8월 15일 하효동 소재 신자 가정집에서 첫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효돈 공소'가 설립되었다. 1988년 2월 10일 본당으로 승격되며 남원공소를 서귀포 본당으로부터 이관 받았다. 그 후 남원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1997년 2월)

됨과 동시에 남원읍 지역을 분리하였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인 '쇠소깍'과 제주의 감귤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감귤박물관'이 있다. 제주에서는 최초로 전 신자들이 협력하여 성지가지를 채취, 작업하여 전국의 성당에 판매하였으며, 위미 소재의 위미경당(가칭)을 관할하고 있다.

서귀포시 효돈로 167번길 11 ☎ [064]767-2355



1968년 당시 효돈공소





### ● 남원성당

남원 지역에 복음이 전래된 것은 1956년으로, 그 해 남원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오갑순(요안나) 자매가 어린이들을 모아 자발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면서였다. 그때부터 오교사는 예비신자 어린이들과 함께 학교 교실과 야외 등지에서 공동체 모임을 갖는 한편, 주일마다 수십 리 떨어져 있는 서귀포 성당(p.34) 까지 걸어가서 미사에 참례하였다. 이 사실을 서귀포 본당의 제13대 주임으로 재임하던 모 로베르토(R. Brady) 신부가 알게 되었으며, 1956년 8월 남원 공소의 첫 미사를 남원 초등학교에서 집전하였다. 1977년 7월 31일에 현재의 위치로 공소 건물을 신축 이전, 전교회장의 부자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980년대에 들어 공소의 신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8년 2월 10일 효돈본당 설립과 동시에 새 본당 소속이 되었다가 1997년 2월 5일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53 ☎ (064)764-1712





표선성당



표선성당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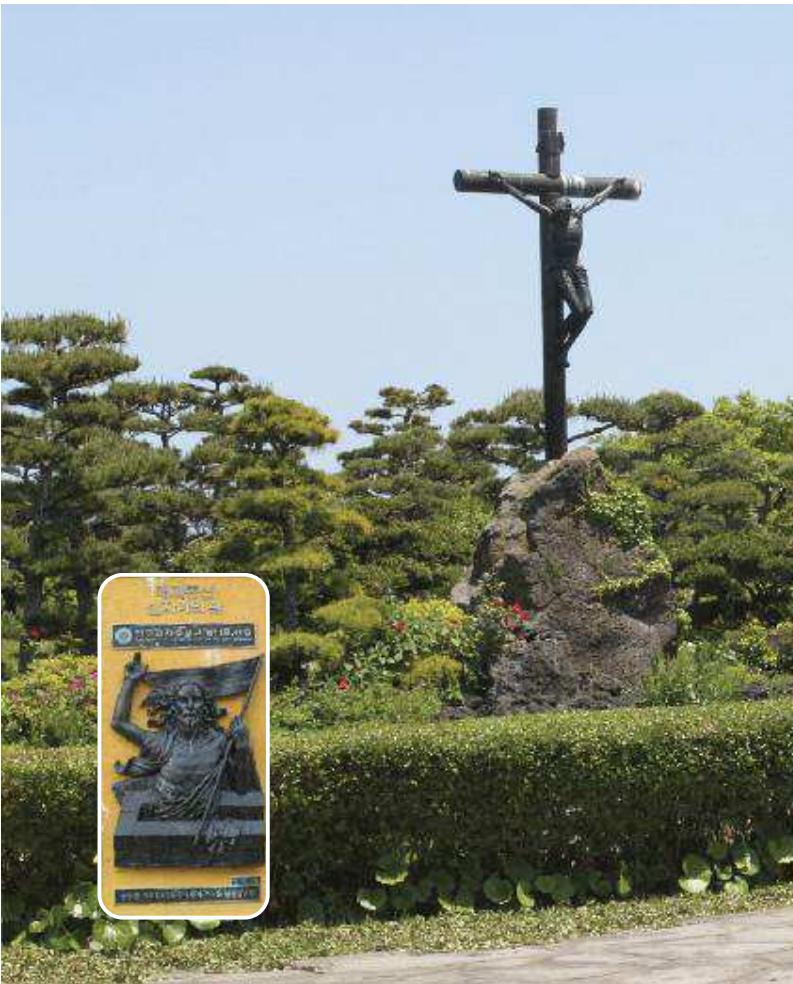
### ● 표선성당

본래 서귀포 본당의 사목관할 구역이었으며, 복음이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문헌상으로는 1964년 1월 표선리 소재 한신자(송석길)의 집에 모여 첫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표선공소가 설립되었고, 1966년 신자수가 30명 정도로 증가하면서 현 소재지에 경당을 건립(1967), 1990년 증축하였다. 1973년 성산도 본당이 설립되면서 소속이 되었다가 1997년 2월 5일 본당으로 승격, 신자 수는 교구에서 가장 적은 372명이었다. 고사리 판매 등을 통해 새 성전 건립에 힘써 2011년 5월 28일 축복식을 가졌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169

☎ (064)787-0173





성산포성당 매괴동산 십자가의 길

## ● 성산포성당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제주에서 해를 가장 먼저 맞으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정원과 갈대숲이 있는 아름다운 성당. 성전 외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타일아트가 장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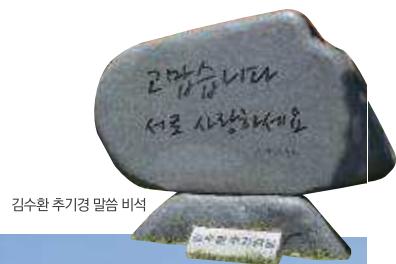
성산포 지역에는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신자들의 이주로 인해 초기의 신앙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그 후 1951년 12월 27일 현경훈(시몬) 기족이 성산읍 고성리에 정착하면서 다시 복음의 터전이 마련되고, 신자 수가 증가하면서 1955년 12월 25일 '성산포 공소'가 설정되었다. 1964년 현 성당 부지에 46평 규모의 공소경당을 신축, 이후 1970년 5월 20일 새로 설립된 서귀 중앙 본당 관할로 편입되었다가 1973년 8월 23일 본당 승격되었으며, 동시에 표선·김녕·

우도·세화 공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그 후 김녕 공소가 1988년에 광양 본당으로 이관되고, 1997년에 표선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관할 구역을 갖게 되었다.

'성신 유치원'을 개원(1976년 5월 15일)하여 신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음화와 유치원을 통한 유아의 교육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오조로 120

☎ 064)782-0500



김수환 추기경 묘석



성산포성당



성산포성당 성전



성전외벽 타일아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 ● 우도공소

제주관광의 명소인 우도의 우도공소는 모본 당인 성산포 본당보다 일찍 천주교 신자가 자리 잡으면서 100년이 넘는 신앙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150여명의 신자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2019년 11월 현재의 새 성전 축복식을 가졌다.

제주시 우도면 영일진사길 8 ☎ [064]783-0631



우도공소



성전 축복식



옛 성전의 종탑과 제대, 애의 성모상

순례길의 아름다운 시간을 기록하세요!

### 설치장소



(예시) 신축화해길 스탬프

김대건길 고산성당, 용수성지, 신창성당

하논성당길 서구포성당, 하는성당터, 면령의 집, 서귀복자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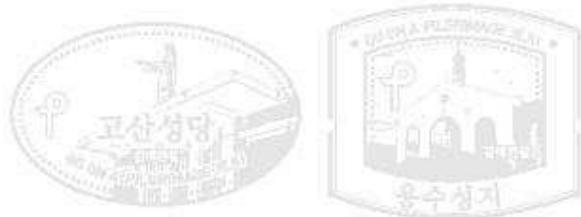
김기랑길 조천성당, 복자 김기랑 펠릭스 베드로 순교현장비

정난주길 정난주 마리아묘(대정성지), 모슬포성당

신축화해길 황사평성지, 화복성당, 주교좌 중앙성당,

이시돌길 성 이시돌센터 전시관, 클리리수녀원, 조수공소,

정수공소, 고산성당  
기타 주자공소





## MEMO

\* 순례길 거점의 스템프를 찍으실 때 이용하세요

서문성당, 신제주성당, 연동성당, 노형성당, 청난주성당, 하구성당, 동분성당, 괘양성당, 김기랑성당, 동광성당, 김량성당, 세화공소, 애월성당, 한림성당, 화순성당, 중둔성당, 흐든성당, 남원성당, 표선성당, 성산포성당, 우도공소, 강경공소, 미라도경당 (판대정, 무릉공소, 가나간공소)

## MEMO

\* 순례길 거점의 스템프를 찍으실 때 이용하세요

MEMO \* 순례길 가점 의 스템프를 찍으실 때 이용하세요